

# 李齊賢, 權漢功 그리고 朱德潤

- 高麗後期 性理學 受容期の 人物에 대한 새로운 理解 -

張 東 翼\*

## 目 次

- I. 머리말
- II. 새로 發見된 李齊賢·權漢功의 詩文
- III. 萬卷堂의 設置와 李齊賢 等 三人의 交遊背景
- IV. 李齊賢 等 三人의 交遊
- V. 맺음말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새로운 자료를 통해 14세기 전반의 韓·中 兩國의 文人의 交遊를 살펴 본 것이다. 먼저 忠宣王이 大元蒙古國 武宗의 翁彔에 參與한 以後 그의 活動相에 대해 살펴보았다. 곧 충선왕은 政界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思想界에서 활약하면서 幕後의 實力者로서 존재하였다. 이때 그는 儒學者들과 연결하여 科擧制의 실시를 관철시켰고, 江南出身의 儒學者[南人]들을 중앙정계에 발탁시키기도 하였다. 또 江南의 佛敎敎團을 티베트 佛敎에 薰陶되어 있던 大元蒙古國의 지배층과 연결시켜 주는 架橋의 역할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萬卷堂을 설치하여 文人·儒學者들을 불러 모았는데, 이에는 고려에서 徵召된 그의 隨從臣, 漢人·南人出身의 既成의 文翰官僚, 그리고 官僚로서 立身하려던 江南出身의 文人·儒學者[南人] 등이었다. 충선왕은 이들을 文翰官僚로 推薦하여 임명되게 하거나 自身の 意思에 의해 임명할 수 있는 征東儒學提擧, 瀋陽王府 및 高麗王府의 幕僚인 王傅·斷事官 등에 임명하였다. 이러한 構成員中에서 後

\*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학부 교수

日 高麗에 性理學을 수용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部類는 ‘門士’로 표현된 江南出身의 少壯儒學者層으로 추측된다.

萬卷堂에 참여했던 文人 중에서 그 자취를 뚜렷하게 남긴 인물은 權漢功, 李齊賢 그리고 朱德潤이다. 이들 사이의 교유는 이제현과 주덕윤의 文集에 일부분이 반영되어 있었지만, 그 親密度를 분별하기 어려웠다. 筆者가 최근에 찾아낸 이제현과 權漢공이 주덕윤에게 贈與한 親筆의 詩文〔翰墨〕을 통해 이들 사이의 交遊像을 보다 구체적으로 檢定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 자료는 權漢공이 浙江行省 德清縣에서 머물면서 지은 7言詩 2首, 이제현이 주덕윤의 「美人圖」의 題記에 대한 次韻한 4首 等の 都合 6首이다. 이들의 所藏處·材質·크기 등은 불분명하지만, 당시에 麗·元 兩國 文人間의 交遊相을 고찰하는데 중요한 자료의 하나가 될 수 있다. 곧 당시에 兩國의 文人間에는 수많은 詩文의 唱和가 이뤄졌을 것이지만, 현재 많이 남아 있지 않다. 또 元人의 문집에는 高麗人에게 贈與한 시문의 일부가 남아 있으나, 그에 和答한 고려인의 시문은 거의 남겨져 있지 않다. 그렇지만 權漢공과 이제현의 시문에 對應한 주덕윤의 시문이 그의 문집에 수록되어, 이들 세 사람의 교유와 학문적 교류의 형편을 살펴볼 수 있기에 從來의 어느 자료보다도 有用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들 자료는 親筆의 翰墨〔眞迹〕으로서 당시의 眞跡이 거의 남아 있지 않는 현재의 형편에서 여러 면에서 크게 주목될 수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權漢공의 경우는 이제현과 달리 그 자취가 거의 없는 점에서 그의 眞迹과 문헌능력을 검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 자료는 향후 고려후기의 詩文 및 書藝分野의 연구에서 큰 位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 주제어

元帝國, 高麗, 忠宣王, 李齊賢, 權漢功, 趙孟頫, 朱德潤, 墨蹟, 性理學, 羅振玉.

## I. 머리말

고려왕조는 13세기 전반이래 몽고제국의 침입을 받아 30여년 간에 걸쳐 전쟁을 계속하다가 국력이 消盡되어 마침내 1259년(高宗46, 蒙古憲宗9) 굴복하게 되었다. 이후 고려는 몽고제국의 지배질서하에 편입되게 되었으나, 餘他の 여러 국가와 민족과 달리 국가체제를 온전히 보존하여 독자적인 운영이 가능하였다. 그 결과 당시 中原의 文人들로부터 고려왕조는 '中國의 옛 封建國家와 비슷한 位相을 지닌 國家'라는 인정을 받기도 하였다.<sup>1)</sup> 그렇지만 몽고제국내의 정국운영의 변화에 따라 시기에 따라서 그들의 강한 정치적 압박을 받아 국가의 운영에 수많은 어려움이 隨伴되기도 하였다.

이때 몽고제국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高麗人들은 여러 통로를 통해 中原에 진출하여 蒙古人·中國人을 위시한 西域人·印度人 등의 여러 민족과도 접촉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민족과의 접촉을 통해 韓民族文化의 폭이 크게 넓어지게 되었다. 그 중에서 고려후기의 문화적 변동에 커다란 영향을 준 것은 中國人과의 접촉이었다(張東翼 1997年).

현존하는 韓·中 兩國의 문헌자료에 의하면 麗·元兩國의 문인이 비교적 활발히 접촉한 시기는 忠宣王[瀋王]이 武宗[海山]의 옹립에 성공하여 蒙古帝室에서 정치적으로 높은 위상을 유지하고 있던 시기(1307, 大德11~1320, 延祐7)이다. 곧 충선왕이 중원에서 체재하고 있었던 시기는 世祖 쿠빌라이에 의해 漢人 및 江南人이 중앙정계에 본격적으로 起用되어 몽고제국의 문물제도가 정비되어 帝國의 지배질서가 잘 貫徹되고 있었던 융성기라고 할 수 있다.

1) 姚燧 『牧庵集』 권3, 「高麗瀋王詩序」; 虞集 『道園類稿』 권20, 「送憲部張樂明還海東詩序」; 陳旅 『安雅堂文集』 권4, 「送李中父使征東行省序」.

이 시기에 충선왕은 고려의 餘他の 어느 君主에 비해 몽고제국의 지배질서와 문물제도를 고려에 수용하려고 노력하였고, 또 大都에 장기간에 걸쳐 체재하면서 고려의 관료들을 불러와 그들의 眼目を 높게 하려고 하였다. 이로 인해 많은 고려의 관료들이 中原에 들어가 충선왕의 문하에서 從遊하고 있던 元의 文人들과 빈번히 접촉하고 있었다. 그 결과 南宋에서 발전했던 성리학을 위시하여 각종 선진문물이 고려에 전수되어 이후 韓半島인의 정신 및 과학적인 면에서 큰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당시 元의 문인들과 긴밀한 교류를 하고 있었던 대표적인 인물은 李齊賢(1287~1367)과 權漢功(1263?~1349)이다. 이제현의 경우는 그의 문집이 남아 있어 麗·元兩國의 문인교류에 있어서 대표적인 사례로 검토되어 朱子性理學의 수용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음을 밝힌 견해도 제시되었다[金庠基 1963年·鄭玉子 1981年]. 이에 비해 권한공의 경우는 문집이 온전히 남아 있지 않아 그의 文翰的인 역량은 검토될 수 없었고, 후일에 일어난 忠肅王과 瀋王 鬮의 高麗王位의 쟁탈전에서 後者를 후원하여 後世의 史家에 부정적인 인물로 묘사되기도 하였다.<sup>2)</sup>

이상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서 먼저 筆者가 최근에 발견한 이제현과 권한공이 朱德潤(1294~1365)에게 贈與한 親筆의 詩文(翰墨)을 제시하여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이어서 이 자료가 만들어진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 충선왕의 門下에서 從遊한 麗·元 兩國의 문인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 이를 기반으로 하여 元의 문인 중에서도 끝까지 충선왕의 측근에 있었던 江南出身의 朱德潤과 이제현·권한공의 교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로써 몽고제국의 정치적 압제하에서 이루어진 麗·元兩國의 문인

2) 『高麗史』권125, 列傳38, 姦臣1, 權漢功.

의 교유상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볼 수 있게 될 것이다.<sup>3)</sup>

## II. 새로 發見된 李齊賢·權漢功의 詩文

필자는 장기간에 걸쳐 東아시아의 言語로 쓰여진 자료 중에서 고려시대의 대외관계에 관련된 내용을 발췌·정리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였지만, 아직 손길이 미치지 못한 바가 많이 있다. 그 한 사례로 필자는 지난 10여 년에 걸쳐 元代에 만들어진 권한공과 이제현의 시문이 수록된 書帖을 계속 수소문하였지만 얻지 못했다. 그러다가 최근에서야 지난 10년 전 이래 수십 차례에 걸쳐 지나다니고 있던 書架에서 중국의 역대 유명한 명필가들의 墨迹을 모아둔 書帖에서 그렇게 찾고자 했던 자료를 찾게 되었다.

이 책은 아무런 刊記가 없어 어떻게 출간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1939년 이전에 중국에서 간행된 서첩으로 추측되는 『百爵齋藏歷代名人法書』이다. 이 책은 3권 3책으로 크기는 가로 29cm, 세로 44cm의 큰 책으로 이에 수록된 자료들의 크기는 가로는 16~20cm 정도로 적절히 절단하여 여러 面으로 분산하였고, 세로는 26~29cm 정도이다. 이에 수록된 목적은 五代의 楊凝式(楊少師)·宋代의 孝宗, 그리고 元代의 趙孟頫를 위시한 15人, 明代의 3人 등의 20件(卷上), 明代의 인물 2人的 11件(卷中), 明代 人物 5人과 清代人物 3人的 9件(卷下)이 수록되어 있다.

3) 이러한 주제는 金庠基 1963年·高柄翊 1970年 등의 개척적인 연구를 계승한 기왕의 연구에서도 많이 취급되었으나, 그 연구의 時點에서 주목되었던 업적은 西上實 1978年·北村 高 1985年·池榮在 1980年·朴現圭 1991年·金光哲 1996年·張東翼 1999年 등이다.

이 중 필자의 주목을 끌은 자료는 卷上의 「元兪午翁·馮海粟等十二家投贈朱澤民詩文」이다. 이 제목은 이 책자를 편집한 인물에 의해 붙여진 題名인데, 이의 뜻은 '元代의 兪焯(號 午翁)·馮子振(號 海粟) 등의 12인이 朱德潤(1294~1365, 號 澤民)에게 贈모한 詩文'이라는 것이다.<sup>4)</sup> 또 이 자료의 내용을 통해 볼 때 12인의 인물들이 각각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여러 가지의 주제로 撰한 그들의 시문을 주덕윤에게 증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자료는 주덕윤 또는 그의 後孫에 의해 주덕윤에게 증여된 시문을 모아 連接하여 하나의 書帖으로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

현재 이 자료의 所藏處는 알 수 없지만, 이 책자가 만들어진 1930년 대에는 冊名을 통해 볼 때 '百爵齋'에 소장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明·清代 이래 수많은 藏書家들의 수많은 서재가 있었는데, '百爵齋'도 그러한 서재의 하나이다. 그 중에서도 주목되는 것은 中華民國時代의 羅振玉(1866~1940)의 藏書樓인 旅順에 위치했던 '大雲書庫'의 방 이름[室名] 중에 '百爵齋'가 있다. 추측하건데 이 자료는 羅振玉의 소장품이었던 것 같고, 이 자료의 이름도 羅振玉이 지은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다면 방대한 羅振玉의 著作을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그의 문집인 『羅雪堂先生全集』 初編2冊에<sup>5)</sup> 수록되어 있는 『永豐鄉人藁』 丁稿에 「雪堂書畫跋尾」 1卷이 있다. 이에 「存復齋朋舊投贈詩文集跋」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위에서 언급된 「元兪午翁·馮海粟等十二家投贈朱澤民詩文」의 跋文에 해당한다.<sup>6)</sup> 향후 羅振玉의 소장품의 행방과 관련하여<sup>7)</sup> 이 자료를

4) 이 자료는 周倜 等編 1998年에도 수록되어 있는데, 題名은 「元十二家投贈朱澤民詩文」이다.

5) 文華出版公司, 1968 : 臺灣 大通書局, 1986.

6) 羅振玉의 跋文에 의하면 이 書帖은 그의 親舊인 劉鶚(字 鐵雲, 1857~1909)의 所藏이었던 것을 羅振玉이 入手하게 되었다고 한다.

7) 羅振玉의 藏書는 1945년 蘇聯軍의 旅順駐屯으로 인해 많이 散失되었고, 1949년 이

찾아서 이에 수록된 개별 시문의 여러 양상들이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이 자료에 수록된 시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表1>과 같다.

<表 1> 「元十二家投贈朱澤民詩文」의 收錄一覽

順番	葉數	題名(『』은 假稱)	日付	撰者
①	1~5	朱澤民集序	至正九年秋閏七月望後	兪焯
②	6~10	「蘇臺春宴圖記」		馮子振
③	11~13	奉送澤民茂異	延祐己未季秋十五日	龔璣
④	14~17	奉爲澤民提學賦山水歌	天曆元年初夏	貢奎
⑤	18~21	鄙句奉謝澤民提學惠制春山樓觀圖	天曆二年冬一月三日	王時
⑥	22~24	없음		元明善
⑦	24~25	「景定五年實錄館脩撰朱公官誥書後」		柳貫
⑧	26~27	「存復齋集序文」	至正九年秋閏七月十五日	黃潛
⑨	28~29	德清艤舟亭壁上有燕山史明詩次韻、 德清驛壁畫玉與蘇史乘鸞奔月有石烈 紇伯玉詩次韻		權漢功
⑩	30~33	朱澤民秀才見示美人屏風四詩次韻		李齊賢
⑪	34~35	奉贈澤民茂異		姚式
⑫	36~38	堅上人重往江西謁虞閣老賦七言律一 首爲贈因寫卷中		秦不華

이들 시문은 兪焯(?~?) · 馮子振(1253?~1327以後) · 龔玉璣(1265~1331)  
· 貢奎(1269~1322) · 王時(生沒年不明) · 元明善(1269~1322) · 柳貫(127  
0~1342) · 黃潛(1277~1357) · 권한공 · 이체현 · 姚式(生沒年不明)<sup>8)</sup> · 秦不

래에 현재의 遼寧省圖書館과 大連市圖書館으로 옮겨졌다(趙成山 1994年).

8) 이 자료를 설명한 周倜 등은 姚式은 生沒年 및 事迹이 不詳하지만, 元初에 趙孟頫 · 鐵選(?~?, 吳興人) 등과 함께 '吳中八俊'에 속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湖州 歸安人(吳興)으로 字는 子敬이며, 趙孟頫와 함께 敖繼翁에게 受學하였고 1301年(大德5)頃 紹興路學教授를 역임하였다(『剡源文集』권5, 『敷山記』). 주덕윤도 皇慶年間(1312~1313)에 그로부터 畫法에 대해 수학하였다(『存復齋續集』, 『題徽太古所藏郭天錫畫卷後』).

花(1304~1352) 등 12인의 작품으로서 이를 連接하여 하나의 書帖(法帖)으로 만든 것이다. 이들 중 고려인 권한공과 이제현을 제외한 나머지는 江南地域의 대표적인 문인들로서 대부분이 고려의 문인들과도 교류하고 있었던 인물들이다.

이들 자료 중에서 고려왕조와 관련이 있는 것은 ①과 ⑧인데, 먼저 ①은 1349년(至正9, 忠定王1) 閏7월에 兪焯(生沒年不明)이<sup>9)</sup> 쓴 朱德潤(字는 澤民)의 시문집인 『存復齋集』의 다른 이름인 『朱澤民集』의 序文이다. 이에 의하면 仁宗대에 주덕윤의 능력을 認知하고 있던 忠宣王(瀋陽王)이 嘉禧殿에서 引見(引對)하고, 征東儒學提舉(征東提學)에 임명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周伯琦(1298-1369)가 지은 주덕윤의 묘지명에<sup>10)</sup>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이 書帖은 당시의 書式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皇帝인 仁宗을 仁廟로 表記하고 行을 바꾸어, 諸王인 瀋陽王(忠宣王)을 瀋陽으로 표기하고 一文字를 띄어 各各 尊崇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당시의 書式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瀋陽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다.<sup>11)</sup>

또 자료 ⑧은 ①과 같은 해의 가을에 黃潛이 姑蘇驛에서 주덕윤으로부터 그의 著作인 『存復齋集』을 받고서 지은 序文이다.<sup>12)</sup> 이에서도 주덕윤

9) 兪焯은 滄沙人으로 주덕윤과 어릴 때부터 스승을 따라 배울 때부터(桐子師時) 文墨으로 30餘年間に 걸쳐 교제하였다고 하지만, 어떠한 인물인지 알 수 없다.

10) 『存復齋文集』附錄, 「有元儒學提舉朱府君墓志銘」.

11) 이 자료는 明代에 주덕윤의 曾孫 朱夏重이 편집한 『存復齋文集』10卷(四部叢刊續編 集部本)에는 '瀋陽'이 '瀋王'으로 改書되어 있고, 帝王에 대한 尊崇을 위한 擡頭, 띄어쓰기가 行해지지 않았다. 또 兪焯이 처음 이 자료를 筆寫할 때 '瀋王'을 '瀋陽'으로 잘못 記載한 誤字일 가능성도 있다.

12) 이 자료는 『存復齋集』附錄에 수록되어 있다. 또 이때의 『존복재집』은 古文으로 쓰여진 것으로 賦가 21首, 銘이 217首, 記가 11首, 序가 9首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 충신왕의 총애를 받아 征東行省 儒學提舉에 임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이들 자료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⑨와 ⑩의 권한공과 이세현의 시문인데, 처음에 쓰여진 模樣을 그대로〔原形〕轉載하면 다음과 같다.

①權贊善 德清艤舟亭壁上有燕山史明」  
詩 次韻」

水氣迷雲欲上干艤舟亭畔暫偷」  
閑長橋盡」成圖書淺瀨珊」響」  
珮環舴艋深依黃華曲招提半」  
隱翠林間溪邊魚鳥非相識猶戀」  
天香去又還 ②辰韓權漢功」  
德清驛壁畫弄玉與蕭史乘鸞」  
奔月有石烈紇伯玉詩 次韻」  
寶鬘花鈿百寶樵玉簫明月滿」  
中窗彩鸞一去無尋處惆悵三山路杳茫」

朱澤民秀才見示美人屏風四詩次韻」

鼓琴 ③鷄林李齊賢」  
憶年始二八學彈綠綺琴得升君④□□」  
每奏太古音玉軫比君德朱絃⑤□□□」  
願言相纏結調成雙鳳吟」  
佩悅」  
結褵到君舍奄忽一餘年丹心期白」  
首皎日在青天女蘿附長松弱質能」  
自持願保栢舟節爲君守深閨」  
觀書」

---

현존하는 『존복재문집』(四部叢刊續編集部本)의 내용과 차이가 크다.

亭 〃 綠窗妹灼 〃 鸞鳳儀潛心烈女」  
 傳古訓庶莫違侯門豈不貴媒灼亦」  
 有辭難將芝蘭質備君歌舞姬」  
 倦織」  
 含情不自聊脈 〃 臨瓊戶非關被春惱」  
 倦織機中素容華安足恃貝錦生嬌」  
 妬世事諒如斯曾參困投杼」

이들 作品은 모두 5首의 詩文인데, 앞의 2首는 冒頭의 追記에 權贊善으로(①), 作者 自身은 辰韓 權漢功(②)으로 記載하고 있다. 權贊善은 權漢功이 元으로부터 皇太子의 道德·侍從·文章 등을 담당하는 太子左贊善(正6品)에<sup>13)</sup> 임명되었기 때문에,<sup>14)</sup> 당시에서 權贊善으로 불리어졌다.<sup>15)</sup> 다음의 3首는 鷄林 李齊賢으로 기재되어 있어(③) 作者가 이제현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들 자료는 實物보다는 상당히 축소되어 影印된 것으로 보이며, 실물의 크기는 이 보다 2倍律 以上으로 추측된다. 이를 면밀히 살펴볼 때 권한공의 시문은 하나의 큰 종이를 세로로 접은 후 線에 맞추어 글을 쓴 것 같다. 이제현의 시문은 하나의 종이에 詩文 1首씩을 쓴 것 같은데, 후일 이 자료를 적절히 裁斷하여 連接한 것으로 추측된다. 또 권한공의 시문은 影印本에 수록된 종이의 크기는 가로 25.4cm, 세로 24cm 內外이고, 글자는 11行, 1行 12~16字로 되어 있다. 큰 글씨 곧 詩文(本文)은 平均 1.5cm 內外, 작은 글씨(②)는 1cm 內外, 작은 글씨의 追記(①)는 0.7cm 內外이다. 이제현의 시문은 종이의 크기는 가로 49.7cm, 세로

13) 『事林廣記』別集권2, 官制類, 官職新制, 東宮品職(叡山文庫所藏本).

14) 『高麗史』권125, 列傳38, 姦臣1, 權漢功.

15) 그래서 李齊賢·朱德潤도 權漢功을 權贊善으로 呼稱하였다(『益齋亂藁』권5, 「送辛員外北上序」; 『存復齋文集』권8, 「別後懷權贊善·李仲思二宰」; 『存復齋續集』, 「別後懷權贊善」).

24.1cm 內外이고, 글씨는 17行, 1行 14~15字로 되어 있다. 또 시문의 글씨는 평균 1.5cm 內外, 작은 글씨(③)는 1cm 內外이다. 그리고 1행에서 5行까지의 下端部의 1部가 缺失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2行(④)에서 2字가, 3行(⑤)에서 3字가 脫落되었다.

이들 자료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주목되는 새로운 親筆의 翰墨이다. 먼저 이제현의 경우 문집인 『益齋亂藁』가 현존하고 있지만, 그의 門生인 李穡(1328~1396)이 쓴 序文에 언급되어 있는 것과 같이 극히 일부의 작품만 수록되어 있기에 위의 자료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또 이제현의 眞迹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형편을 감안하면,<sup>16)</sup> 이들 자료는 시문 및 書藝의 분야에서도 주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권한공은 후일 瀋王 暉(忠宣王의 姪, 養子)의 翁傭에 참여하여 고려정부로부터 부정적인 인물로 분류되었고, 이의 결과로 『고려사』의 姦臣列傳에 수록되게 되었다. 그러한 결과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의 문집인 『一齋集』이 현존하고 있지 않고, 조선왕조 후기에 그의 후손들에 의해 그 때까지 잔존한 시문들을 收拾한 『一齋先生逸稿』가 남아 있을 뿐이다.<sup>17)</sup> 이에도 위의 자료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이상의 시문을 贈呈 받은 주덕윤은 충선왕의 문하에 從遊한<sup>18)</sup> 門士로서 권한공·이제현 등의 고려인과 교류하면서 두 사람에게 시문을 증여하기도 하였는데, 그의 문집에는 3首가 남아 있다.<sup>19)</sup> 이러한 교류관계에

16) 『名家筆譜』에 收錄되어 있는 그의 眞迹 十餘字를 이 資料와 比較해 볼 때, 劃의 撇 처 올림에서 비슷한 面이 보이고 있으나, 이 資料의 글씨가 더 洗練되어 보인다.

17) 『一齋先生逸稿』는 權漢功의 作品 19首, 他人이 그에게 贈與한 詩文·遺事 등을 모은 것이다. 그의 作品에는 中原의 名勝에 대해 읊은 것이 많이 있고, 그 중 「贈馮子振待制」는 注目되는 資料의 하나이다.

18) 李齊賢은 이 時期에 忠宣王의 隨從臣을 '法從'이라고 表現하였는데(『益齋亂藁』권4, 「忠宣王眞容移安于海安寺」), '法從'은 帝王의 車駕를 護衛했던 隨從臣을 指稱한다.

19) 『存復齋文集』권8, 「別後懷權贊善·李仲思2宰」, 卷10, 「送李益齋之臨洮」; 『存復齋續

의해 권한공도 주덕윤에게 시문을 증여하였던 것 같다. 또 이제현과 주덕윤의 교유상은 이제현의 문집에 일부 찾아지는데, 두 사람은 元 및 高麗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書畫 및 시문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기도 하였다.<sup>20)</sup> 그렇지만 권한공과 이제현이 주덕윤에게 증여한 시문이 찾아지지 않아 세 사람 사이의 交遊가 그렇게 친밀하였을까? 하는 의문도 없지 않았는데, 위의 자료를 통해 그 의문점이 해소되게 되었다.

이들 시문이 권한공과 이제현의 眞迹(翰墨)이므로 먼저 이 節에서는 書體에 대해 검토해보기로 하자. 이 자료를 墨迹資料集에 수록하기 위해 편집에 참여한 현재의 중국학자는 “權贊善과 李齊賢 두 사람의 生涯와 事迹이 상세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書法도 다른 인물들과 같지 않다 權贊善·李齊賢二人 生平事迹不詳 其書法 亦不若其他各家”라고 하였다.<sup>21)</sup> 이는 이들 두 사람이 大元蒙古國에 진출하여 官僚 또는 그 代行人으로서 활약하면서 많은 문인들과 교유하였던 고려인이었던 것을 認知하지 못한 결과이다. 그렇지만 그의 書體에 대한 眼目は 고려인의 서법이 元代 江南의 문인들과<sup>22)</sup> 차이를 보이고 있었음을 분명히 지적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수준에 있는 것 같다.

이들 권한공과 이제현의 시문은 字體는 주로 行書를 사용하였고, 草書가 조금 加味되어 있다. 또 글씨의 형태는 細長하지도 않고, 옆으로 퍼지지도 않은 중간 형태이며 날렵하기보다는 다소 투박하고 莊重하여 글씨에 힘이

集』, 「別後懷權贊善」.

20) 『櫟翁稗說』 後集권1 : 『益齋亂藁』 권2, 「雪」, 卷4, 「和鄭愚谷題張彥甫雲山圖」.

21) 周倜 編, 위의 책, 323쪽. 이러한 所見을 提示한 學者의 구체적인 人名의 表記는 없었다.

22) 이 書帖[法帖]을 作成한 江南人 10人中에서 馮子振은 宋代 黃庭堅의 書法을 繼承하였고, 柳貫과 黃潛은 趙孟頫를 媒介로 王徽之의 書法을 繼承하였다고 한다[中川憲一 1985年].

있고, 글씨의 濃淡의 정도는 影印本이기에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이들 시문의 筆體의 수준을 평가받기 위해 影印本을 1/2로 縮小시키고 書者를 밝히지 않은 채, 書學이 아니라 書藝에 일정한 知見을 갖고 있는 筆者의 知人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필자가 요청한 項目에 대한 答辯은 다음과 같다.<sup>23)</sup>

이러한 글씨는 王徽之의 書體를 약간 工夫하였던 느낌은 있지만, 크게 影響을 받은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고 해서 歐陽詢의 書法으로 보기도 힘들며, 趙孟頫의 松雪體의 影響도 받은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이들의 글씨는 習字를 매우 많이 하였던 畵(手法)이지만, 뛰어난 글씨(名筆)라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

以上은 이들 자료가 만들어진 시기 및 書者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非專業의 書藝家의 評이지만, 筆體의 수준을 判가름하기 위해서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權한공과 이제현이 元에 진출했던 시기에는 趙孟頫(1254~1322)가 宋代의 蘇軾·黃庭堅·米芾 등에 의해 이루어진 書風을 변화시켜 王羲之에로의 復古(古意)를 주장하면서 優美典雅한 書體를 開發하여 書法의 基本姿勢(典型)를 새로이 正립하고 있었다[中川憲一 1985年·大野修作 2001年]. 이때에 權한공 등이 그들과 긴밀히 교류하고 있었던 25歲~30歲以上の 年上으로 추정되는 조맹부의 서법에서 영향을 받은 것 같지도 않은 것 같다. 그렇다면 權한공과 이제현의 書法은 고려의 독자적인 書體를 계승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점은 향후 書學專門家の 보다 進전된 검토가 요청될 것이다.

23) 이때 筆者는 日本에 滞在하고 있었는데, 篆書의 書寫에 能熟하다고 評해지는 前慶北大學校 厚生課長 林奇相氏에게 便紙로 諮問을 구하였다.

### Ⅲ. 萬卷堂의 設置와 李齊賢 等 3人의 交遊背景

이제현과 권한공, 그리고 주덕윤 등의 긴밀했던 교유는 世祖 쿠빌라이의 外孫이었던 忠宣王(瀋王, 1275~1325)의 장기간에 걸친 大都에서의 체재에 의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먼저 충선왕의 생애와 元에서의 行蹟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충선왕은 고려에서 출생하여 1325년(충숙왕12, 泰定2) 大都에서 51歲로 一生을 마감하였다. 그는 성장과정에서 父母를 따라 元에 자주 行차하였으나 대부분이 짧은 기간의 체재였다. 그러다가 16歲 때인 1290년(충렬왕16, 至元27) 11월에 元에 들어간 이후 薨去할 때까지 고려의 世子, 國王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元에 더 많이 거주하였기에 고려인으로서의 생활보다는 몽고인으로서의 삶을 더 많이 영위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 2次에 걸쳐 高麗國王에 재위하였으나(1次 1298, 大德2, 2次 1308, 至大1~1313, 皇慶2 在位) 고려에서 視務한 것은 都合 1년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충선왕은 어릴 때부터 그의 世子輔德으로 임명되어 青年時節까지 계속 隨從하였던 유학자인 鄭可臣·閔漬로부터 儒敎經典을 訓導받아 유교적인 소양을 체득하였다. 이러한 학문적인 기반으로 인해 中國의 歷代王朝의 흥망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었던 같으며, 그와 관련하여 中國史書를 講讀하기를 좋아하였던 것 같다.

그는 22歲 때인 1296년(충렬왕22, 元貞2) 11월 晉王 甘麻剌의 딸 寶塔實憐과 婚姻하였다. 그 2年後인 1298년(충렬왕24, 大德2) 1월에 父王의 禪位를 받아 高麗王에 즉위하여 約7個月間에 걸쳐 내정개혁을 추진하다가 내외의 反擊을 받아 元에 의해 강제로 退位를 당하여 같은 해 8월 元에 들어가 이후 10餘年間 大都에서 체재하였다. 이후 그는 고려에서의 정치

적 열세의 挽回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불교계에서도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곧 江南의 佛敎敎團인 白蓮宗이 復交를 위해 노력하고 있을 때, 이와 일정한 관계를 가지기도 하였고, 元皇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大都의 大慶壽寺와 관련을 맺기도 하면서 자신의 立地確保에 노력하였다.

그러다가 1307년(충렬왕33, 大德11) 1월 成宗 死後에 帝位繼承을 둘러싸고 安西王 阿難答과 答刺麻八剌(後日 順宗으로 追尊)의 妃인 答己(後日의 興聖皇后, 40代中半으로 推定) 및 그의 2子 愛育黎拔力八達(後日의 仁宗)의 대립이 전개되었을 때, 忠宣王(33歲)은 그와 친밀한 관계(忠宣王의 甥姪)에 있었던 後者를 지원하여 功을 세웠다. 이어서 西北面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장악하고 있던 1子 海山이 帝位를 탐내고 군사를 거느리고 南下하자, 兩側의 妥協에 의해 答己의 海山(武宗, 27歲)이 卽位하고 愛育黎拔力八達(23歲)은 次期의 帝位繼承權을 擔保받을 수 있는 皇太子에 책봉되었다(金光哲 1996年).

이러한 형편 하에서 皇太子 愛育黎拔力八達은 독자적인 정치·군사적 배경을 마련할 수 없었기에, 儒者들을 東宮官으로 발탁하는 등 儒敎·佛敎와 같은 思想界와 連結하여 점진적으로 자신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때 충선왕은 일반적으로 宰相의 兼職이었던 皇太子를 輔導하는 最高職인 太子太師(正2品)에 임명되어 姚燧·王構·王垚 등을 招聘하여 東宮官 내지는 各種 文翰官으로 拔擢하기도 하였다.<sup>24)</sup> 또 충선왕은 皇太子의 命

24) • 姚燧, 『牧庵集』附錄, 「年譜」, “大德11年丁未 … 冬宮師府遣正字呂洙 持太子太師·瀋陽王王璋書 如漢徵四皓故事”.

• 袁桷, 『清容居士集』권32, 「王構請謚事狀」, “(大德)11年 太師瀋陽王等奏 俾乘驛造朝 拜翰林學士承旨 復脩兩朝實錄 特命贈公二代”.

• 俞希魯, 『至順鎮江志』권19, 僑寓 人材 王垚, “王垚 字樂天 其先汴人 … 性聰敏工詩文 尤長於康節經世之學 至大改元秋 瀋陽王引見武宗皇帝 奏充東宮說書·必閣赤·宮師府太子文學”.

을 받아 각종 불교행사에 참여하여 불교계의 후원을 얻으려고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충선왕은 武宗擁立功臣으로 책봉되고 다시 瀋陽王으로 책봉되었다가 瀋王으로 승격하였고, 中書省에 들어가 國政을 의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武宗의 在位 4年間 그를 옹립했던 세력들이 점차 정계의 주도권을 掌握하게 되자, 皇太子 아우르바르와다를 지지했던 右丞相 哈刺哈孫도 外職으로 밀려났고, 그의 師父였던 李孟도 蹤迹을 감추었다. 이러한 형편 하에서 皇太子 아우르바르와다는 정치적인 활동은 自제한 채 隱忍自重하면서 儒敎界 및 佛敎界의 인물들과 접촉하면서 점진적으로 자신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었다. 이때 충선왕은 太子太師로서 姚燧·蕭剡·閻復·洪革(洪華)·趙孟頫·元明善·張養浩 등과 같은 過去의 金 및 南宋의 유학자들을 불러 모아 東宮官으로 充員하면서,<sup>25)</sup> 아우르바르와다를 側面에서 지원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단기간에 걸친 武宗의 在位가 마감되자 仁宗이 즉위하였는데, 그가 起用한 관료들은 자신의 측근세력도 있었지만 武宗代 以來의 관료들도 있었는데, 이는 자신의 취약점인 군사적 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歲月의 경과에 따라 정계의 요직이 仁宗의 追從勢力에 의해 장악될 때, 太尉·瀋王의 職位만을 가지고 있던 충선왕도 仁宗에 의해 右丞相에 就任할 것을 勸誘받았으나(1314, 延祐1頃) 辭讓하였다고 한다.

이는 충선왕이 仕宦의 意志가 없었던 것으로 추측되기도 하지만, 그가

25) 『益齋亂藁』 권9上, 忠憲王世家, “仁宗爲皇太子 王爲太子太師 一時名士姚燧·蕭剡·閻復·洪革(洪華)·趙孟頫·元明善·張養浩輩 多所投轂 以備宮官”. 이 중 趙孟頫는 江浙行省 儒學提舉를 거쳐 1310年(至大3)에 揚州路 泰州尹에 임명되었으나 赴任하지 않았는데, 이때 皇太子의 徵召에 應하여 翰林侍讀學士에 임명되었다고 한다(『元史』 권172, 列傳59, 趙孟頫; 『松雪齋集』附錄, 「趙孟頫行狀」). 이 자료와 같이 이때 충선왕이 介在되어 있었을 것인데, 이는 이후 兩者間의 친밀한 관계 및 進退를 같이 하였던 점에서 알 수 있다.



就任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로 충선왕이 高麗王位를 가지고 있었기에 그 자신이 元의 政爭에 휘말리게 되면 고려왕조의 安危와 관련될 수 있을 가능성을 豫見했을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충선왕은 일찍이 武宗代에 皇太子 아우르바르와다가 處身했던 것처럼 유교 및 불교 등의 사상계에서<sup>26)</sup>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계의 幕後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려고 하였던 것 같다.

이러한 과정에서 충선왕은 仁宗에게 科擧制의 設行을 건의하여 관철시켰으며, 이의 실시에서 가장 먼저 發議하였고 한다.<sup>27)</sup> 이의 발의는 충선왕의 노력만은 아니고 그의 문하에 從遊하고 있던 程文海·姚燧 및 仁宗을 지지해왔던 李孟 등과 같은 인물들의 複合的인 노력의 產物로 이해할 수 있다.<sup>28)</sup>

이와 같은 충선왕의 역할을 감안해볼 때, 당시 사회에서의 그의 역할은 江南出身의 儒學者(南人)들이 중앙정계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sup>29)</sup> 이와 함께 江南地域에서 中國의 전통적인 불교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던 佛

26) 충선왕의 불교계에서의 활동은 張東翼 1999年 729-733쪽을 참조하기를 바란다.

27) 『익재난고』권9上, 忠憲王世家, “科擧之設 王嘗以姚燧之言 白于帝許之 及李孟爲平章政事奏行焉 其源自王發也”.

28) 元代의 儒治를 위해 노력해왔던 程文海는 世祖의 知遇를 받아 1285年(至元22) 이래 江南出身 儒者의 등용을 위해 노력하는 등 文風의 振作에 크게 기여하였고, 1313年(皇慶2) 科擧制實施의 논의에서 李孟·許師敬 등과 함께 실무를 담당하였다. 그 외에 柏鐵木爾(伯帖木兒)·仁宗의 宿衛出身인 陳顥 등도 과거제의 실시를 건의하였다는 기록이 찾아지고 있다(『金華黃先生文集』권43, 「太傅文安忠憲王家傳」; 『元史』권177, 列傳64, 陳顥). 이로 보아 당시의 과거제의 설행은 충선왕 1人的 건의보다는 당시의 儒者들을 위시한 지배층들의 공통된 관심사였고, 이들 儒者들을 이끌고 있으면서 仁宗의 信任을 크게 받고 있던 충선왕이 이들의 의견을 代辦하여 仁宗에게 건의하여 과거제를 實施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29) 이 점은 南人이 중앙정계의 核心官府에 참가할 수 있었던 것은 皇帝아우르바르와다의 在位時期였다고 본 見解(櫻井智美 1998年 55쪽)와 一致할 수도 있다.

敎敎團과 元의 정권과의 연결의 橋頭堡를 마련하였다는데 또 하나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以上 張東翼 1999年 pp.733].

한편 이 시기에 충선왕은 燕都의 그의 殿閣인 瀋王府에 萬卷堂을 건립하여 麗·元의 많은 儒者를 불러 모아 학문을 토론하였다. 이 만권당에 출입하였던 강남출신의 문인들을 통해 고려의 유학자들이 南宋에서 발달하였던 성리학을 위시한 각종 선진문물을 고려에 수용하여 이후 고려사회의 사상계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이해되기도 하였다. 이제 이 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충선왕이 世子로 있던 시기 곧 1290년(충렬왕16, 至元27) 11월에서 1298년(충렬왕24, 大德2) 1월 高麗王位에 즉위하기 이전의 青年時期에 中原의 문인과 교유한 사정은 구체적으로 찾아지지 않는다. 단지 그가 왕위를 이어받아 귀국할 때, 金代 官僚의 後裔인 翰林學士 王惲(1227~1304)이 詩文 2首를 贈呈한 사례가 찾아지고, 또 이 무렵에 契丹人의 후예인 翰林學士 姚燧(1238~1313)에게 시문을 구한 적이 있다고 한다. 이로 보아 이 시기에도 元의 문인과 교유를 하고 있었으나 극히 한정적이었던 것 같다.<sup>30)</sup>

그러다가 高麗國王位를 아들 忠肅王에게 傳位한 다음해인 1314년(충숙왕1, 延祐1) 閏3月以來 大都에 만권당을 짓고 姚燧·閻復·元明善·趙孟頫, 그리고 이제현 등을 불러 모아 학문을 토론하였다고 한다.<sup>31)</sup> 당시 충선왕은 만권당에 元의 儒者들을 불러 모아 학문을 토론하였다는 점은 이제

30) 이때의 隨從臣은 世子師傅였던 鄭可臣·閔漬(이들은 世子를 訓導하다가 世祖로부터 各各 元의 翰林學士, 翰林直學士로 임명됨)과 朴全之·金暉 등이 있었는데, 이들은 王惲와 교유하였다(『秋澗先生大全文集』권22, 「呈高麗世子」, 「高麗國王謝事詔世子嗣位東還詩以送之」, 「贈高麗樂軒李參政甥朴學士…」, 「和雪中鄭·朴二學士金司業來訪詩韻」).

31) 『목은문고』권16, 「李齊賢墓誌銘」, 이에 비해 『고려사』권34, 세가34, 忠宣王讓位後條에는 閻復·姚燧·趙孟頫·虞集 등이 王의 門下에 從遊하였다고 되어 있다.

현의 描寫뿐만 아니라 다른 자료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이때 충선왕의 문하에서 중유하였던 문인으로 程文海가 찾아지고, 그의 생애 중에 征東行省 儒學提舉를 역임하였던 것으로 추측되는 周長孺·敖止善 등의 강남출신의 儒者도 그의 문하에서 중유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1319년(충숙왕6, 延祐6) 3월 이래 王이 江浙地方을 遊歷할 때 이제현이 만난 湯炳龍(1241~1322 以後, 丹陽人)·許謙(1270~1337, 金華人)·陳樵(1278~1365, 東陽人) 등과<sup>32)</sup> 같은 江南의 儒者들과도 접촉했을 가능성은 높다. 그 과정에서 충선왕은 그가 失勢하기 直前인 1320년(충숙왕7, 延祐7), 곧 仁宗의 在位 마지막 시기까지 주덕윤과 같은 江南의 儒者들을 文翰官으로 발탁할 수 있었던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던 것 같다.<sup>33)</sup>

그렇다면 이 시기에 충선왕의 문하에서 중유한 麗·元兩國의 문인들은 누구였을까? 이들은 위에서 대체로 舉名되었지만, 이를 유형화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고려의 문인으로서 이에 속할 수 있는 部類로는 1298년(大德2) 8월 高麗王位에서 退位當한 후 父王의 死後 復位하여 1308년(충렬왕34, 至大1) 8월에 귀국할 때까지 장기간에 걸쳐 燕都에서의 隨從臣 곧 燕邸隨從臣을 들 수 있다. 이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安珣(1298.8~1299.初?滯在, 前征東行省都事·王京等處儒學提舉)<sup>34)</sup>·白頤正(1298.8~1308頃 滯在)<sup>35)</sup>·崔誠之(1298.8~1299.初滯在)<sup>36)</sup>·權漢功(1298.8~1299.初滯在)<sup>37)</sup>·李彥忠·李混

32) 張東翼, 『元代麗史資料集錄』, 서울대출판부, 1997, 179-183쪽.

33) 이 점은 그가 失勢하기 3~4個月前인 1319年(忠肅王6, 延祐6)冬에 주덕윤을 불렀던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34) 『고려사』권105, 열전18, 安珣. 安珣에 대한 檢討로 張東翼 2009年a가 있다.

35) 『淡庵逸集』권2, 「白頤正行狀」.

36) 『익재난고』권7, 「崔誠之墓誌銘」.

37) 『고려사』권125, 열전38, 姦臣1, 權漢功.

· 崔鈞 · 金元具 · 金廷美(?~1317?滯在) · 朴景亮(?~1320.6滯在)<sup>38)</sup> 등이 있었다.

그리고 충선왕이 武宗의 옹립에 참여한 이후 자신의 위상을 굳건히 한 1307년(충렬왕33, 大德11) 3월 이후부터 失勢하여 外方으로 추방되게 되는 1320년(충숙왕7, 延祐7) 3월까지 大都에 위치한 殿閣, 곧 後日 瀋陽王 · 瀋王으로의 冊封에 따라 瀋王府로 改稱된 邸宅에서 만권당을 開設하여 있을 때 수종했던 인물이다. 이의 대표적인 인물은 權準(1308.11~1316?滯在)<sup>39)</sup> · 이제현(1314.1~1320.初?滯在)<sup>40)</sup> · 太子府參軍 洪淪<sup>41)</sup> · 尙書 白某[瀋王府事 白元恒?] · 朴仁幹(1316~?滯在)<sup>42)</sup> · 朴元桂(1317.冬~?滯在)<sup>43)</sup> · 李連松(?~1320.6滯在)<sup>44)</sup> 등의 文人官僚, 扈衛를 담당했던 것으로 추측되는 大護軍 蔣得渲 · 親從護軍 林宣 · 中軍將 金完之 · 郎將 吳仲景 등의 軍官,<sup>45)</sup> 元忠(1307, 18歲~1310.8滯在)<sup>46)</sup> · 權載(王煦, 養子, 1311, 16歲~

38) 『고려사』권35, 세가35, 忠肅王 7年 6月, 卷124, 列傳37, 朴景亮 : 『고려사절요』권24, 忠肅王7年 5月條.

39) 金龍善, 『高麗墓誌銘集成』, 翰林大出版部, 2006, 632-635쪽, 「權準墓誌銘」.

40) 『목은문고』권16, 「李齊賢墓誌銘」.

41) 『玉岑山慧因高麗華嚴教寺志』권7, 「大功德主瀋王請疏」, 그는 忠宣王의 隨從臣으로 佛敎의 經典뿐만 아니라 儒敎를 위시한 여러 經書에도 通達하였다고[通內外典] 自負하고 있던 人物이라고 한다(『宋學士文集』권58, 「佛心慈濟妙辯大師別峯同公塔銘」; 『補續高僧傳』권4, 解義篇, 大同師傅). 그의 號는 尙德이며, 忠宣王의 命에 의해 江南에서 수많은 人物들과 接觸하면서 書籍을 購入하여 大都 및 高麗로 輸送하였고, 이때 李齊賢과 함께 忠宣王을 隨從하였고(『익재난고』권4, 「哭尙德洪宰相淪」), 征東 儒學提舉 張淵 · 龔璣 · 揭傒斯(1274-1344) 등과 交遊하였다(『存梅齋稿』「瀋邸洪子深參軍得旨江南印儒書歸國 次韻張清夫所贈 以贈之」, 「贈洪子深<sup>深?</sup>參軍瀋王處購書奉旨乘驛」; 『揭文安公全集』권4, 「贈洪參軍兄弟」).

42) 『졸고천백』권2, 「朴華墓誌」.

43) 『목은문고』권19, 「朴元桂墓誌銘」.

44) 『고려사』권35, 世家35, 忠肅王 7年 6月, 卷124, 열전37, 朴景亮 : 『고려사절요』24, 忠肅王7년 5月條.

45) 『玉岑山慧因高麗華嚴教寺志』권7, 「高麗國相元公置田碑」.

1320頃)<sup>47)</sup> · 元善之(?~1313.2滯在)<sup>48)</sup> · 延安君 暵(養子, 1313.4以後繼續滯在)<sup>49)</sup> 등의 秘書役割을 수행하던 侍從〔內侍〕, 그리고 僧侶 萬奇上人<sup>50)</sup> · 萬恒(慧鑑國師)<sup>51)</sup> 등이 있었다.

다음으로 충선왕이 1307년(大德11) 6월 太子太師 · 瀋陽王에 임명되어 皇太子를 후원하고 있을 때부터 시작하여, 1314년(延祐1) 閏3月 만권당의 개설을 거쳐 失勢한 1320년(延祐7) 初期까지 13년의 기간에 걸쳐 王의 문화에 종유하였던 元의 官僚層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이제현이 기록한 글과 李穡의 기록에서 확인되는데, 이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益齋亂藁』 권9上, 忠憲王世家, “仁宗爲皇太子 王爲太子太師 一時名士姚燧 · 蕭剡 · 閻復 · 洪華 · 趙孟頫 · 元明善 · 張養浩輩 多所投轂 以備官宦”.
- 『益齋亂藁』 권9下, 太祖史贊, “忠宣聰明好古 中原博雅之士 如王構 · 閻復 · 姚燧 · 蕭剡 · 趙孟頫 · 虞集 皆游其門 蓋嘗與之尙論也”.
- 『牧隱文藁』 권7, 「益齋先生亂藁序」, “… 高麗益齋先生 生是時 年未冠 文已有名當世 … 大爲忠宣王器重 從居輦轂下 朝之大儒搢紳先生 若牧菴姚公 · 閻公子靜 · 趙公子昂 · 元公復初 · 張公養浩 · 咸游王門 先生皆得與之交際”.
- 『牧隱文藁』 권18, 「李齊賢墓誌銘」, “忠宣王 … 遂請傳國于忠肅 以太尉留京師邸 構萬卷堂 考究以自娛 因曰 京師文學之士 皆天下之選 吾府中未有其人是吾羞也 召至都 實延祐甲寅正月也 姚牧菴 · 閻子靜 · 元復初 · 趙子昂 咸游王門 公周旋其間 學益進 諸公稱歎不置”.

46) 『졸고친백』 권2, 「元忠墓誌」.

47) 『東文選』 권125, 「王煦墓誌銘」; 『고려사』 권110, 열전23, 王煦.

48) 『졸고친백』 권1, 「元善之墓誌銘」.

49) 『고려사』 권91, 열전4, 宗室2, 忠烈王 · 江陽公滋 · 暵.

50) 『黃州府志』 권39, 「敕賜重建5祖禪師碑」.

51) 『익재난고』 권7, 「有元高麗國曹溪宗 … 寶鑑國師碑銘并書」.

이상에서 충선왕의 문하에 종유한 인물들이 羅列되었는데, 이제현은 당시의 사정을 직접 目睹하였을 것이고, 李穡도 國子監에서 3年間 修學한 후 우수한 성적으로 廷試에서 합격하였기에 당시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들의 내용을 종합하면 충선왕의 문하에서 종유한 인물들을 年齡順으로 보면 閻復(1236~1312)·姚燧(1238~1313)·蕭軾(1241~1318)·王構(1245~1310)·洪華(洪革, 생몰년불명)·趙孟頫(1254~1332)·元明善(1269~1322)·張養浩(1270~1329)·虞集(1272~1348) 등의 9人이다.

이들은 이제현과 이색이 기억하고 있었던 문인들의 대표적인 몇 사람 일뿐이고, 그 외에도 왕을 위해 시문과 기문을 지은 程文海,<sup>52)</sup> 왕에 의해 東宮官으로 발탁된 王垚, 그리고 1310년(至大3) 1월 大都에서 충선왕이 世子에게 傳位하려고 할 때 表를 지은 學士 楊某[楊學士]<sup>53)</sup> 등도 충선왕의 문하에 종유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충선왕에 의해 征東行省 儒學提舉에 임명된 인물로는 張淵(1312~1313年頃에 歷任, 吳江人, 趙孟頫의 門人)<sup>54)</sup>·潘東明(1312年9月1日以前에 歷任)<sup>55)</sup>·周長孺(1318年 在職, 安福州人, 袁桷과 交遊)<sup>56)</sup>·주덕윤(1320年 任命)<sup>57)</sup> 등이 있다. 또 임명된 시기를 분명히 알 수 없으나 충선왕의 생애 중에 임명된 인물로 敖止善(吳澄과 交遊)·安成周(江浙行省照磨 賀景文의 妻父)·黃可任(富州人, 吳澄과 交遊한 黃淳의 弟) 등이<sup>58)</sup> 있다. 그

52) 『楚國文憲公雪樓程先生文集』권18, 「大慶壽寺大藏經碑」, 卷30, 「太常引壽高麗王」.

53) 『高麗史』권33, 世家33, 忠宣王 2年 1月.

54) 『揭文安公全集』권5, 「吳歌1首送張清夫提舉征東校官先還吳中」; 『元詩選癸集』권丙, 張提舉淵.

55) 潘東明은 1312年(皇慶1) 9月 1日에 '前征東省提舉儒學'을 稱하고 있음을(徐東, 『運使復齋郭公言行錄』, 「浮梁州建學序」) 보아 이 時期以前에 歷任하였음을 알 수 있다.

56) 『清容居士集』권18, 「周隱君墓誌銘」.

57) 『存復齋集』附錄, 「朱德潤墓誌銘」.

58) 張東翼, 『高麗後期外交史研究』, 一潮閣, 1994, 71-76쪽.

리고 瀋陽王府의 斷事官 蕭均衡<sup>59)</sup> · 1314년(延祐1) 高麗王府의 斷事官 壬老君(吉州人 袁恮의 婿)<sup>60)</sup> 등이 있다. 이들은 주덕윤과 같이 충선왕을 따라 고려에 온 인물도 있고, 大都에 머물면서 충선왕을 수종한 인물도 있었을 것이다.

이들은 모두 江南出身의 儒者로서 충선왕의 문하에서 종유하다가 왕의 推薦(保薦)을 받아 征東儒學提學 · 瀋陽王府 및 高麗王府의 斷事官에 임명되었을 것이다. 이로 인해 1325년(泰定2) 5월 13일(辛酉) 충선왕이 大都에서 薨去하자, 15일(癸亥) 주덕윤을 중심으로 한 충선왕의 '門士'들이 모여 祭需를 갖추어 祭를 올렸다. 이때 주덕윤이 祭文을 지었는데,<sup>61)</sup> 이 제문에서 '門士'라고 표현된 인물들은 충선왕의 문하에서 종유하던 여러 儒士 · 官僚들을 指稱함이 분명할 것이다.<sup>62)</sup>

이들 '門士'集團들이 1314년(延祐1) 閏3月 충선왕에 의해 설치된 만권당에서 왕의 문하에 종유한 儒士의 核心을 이루었을 것이고, 이에 征東儒學提學에 임명된 인물들을 위시하여 이제현과 이색이 擧名한 만권당에 종유할 당시에 40代以下の 中堅儒學者였던 元明善(大名 清河人) · 張養浩(濟南 歷城人) · 虞集(四川 仁壽人) 등과 같은 인물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 결과 1320年(延祐7) 初 곧 충선왕이 실세하기 직전에 만권당에 合流한 江浙行省 姑蘇(崑山)出身의 少壯儒學者인 주덕윤도 征東儒學提學 및 瀋

59) 『揭文安公全集』권13, 「蕭景能墓誌銘」.

60) 『養吾齋集』권32, 「袁謹齋墓誌銘」.

61) 『存復齋文集』권7, 「祭太尉瀋王文」.

62) 門士는 中國古代에서 '門番' · '門吏' · '門卒'과 같은 意味로 使用되었으나, 이때는 '門下의 士[門下士]' · '門下의 人' · '門下의 客' · '門下의 書生'을 指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 주덕윤은 1323年(至治3) 10月 6日 丞相 · 東平王 拜住를 위해 지은 祭文에서도 自身을 '門士朱某等'으로 표현하고 있다(『存復齋續集』, 「故丞相東平王拜住祭文」).

陽王府·高麗王府의 王傅·斷事官 등을 歷任했던 江南의 諸地域出身의 인물들을 위시하여 中原의 각지에서 모여든 인물들과 교류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sup>63)</sup>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충선왕의 만권당은 韓·中 兩國 文人의 교류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미 중앙정계에서 확고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었던 漢人出身의 문인과 새로 진출한 江南의 南人出身의 문인을 연결시켜 준 橋頭堡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또 南宋의 滅亡에 따라 강남출신들의 公的인 만남의 기회의 하나였던 科擧가 실시되지 않았기에 학자들의 교류가 단절된 상태를 고려해 볼 때, 만권당은 元代以來 각지에 분산되어 疏通의 機會가 거의 없었던 南人들이 보다 활발히 交際할 수 있는 空間이 되었을 것이다. 이 점에서 만권당이 가지는 일정한 의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충선왕이 武宗·仁宗代에 諸王으로서 王府[潘王府]를 開設하고 있으면서 유교·불교를 중심으로 한 사상계와 긴밀히 연결하려고 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그의 문하에는 文人·儒士以外에도 僧侶·道士·醫士·陶工·相士·地師·術士 등과 같은 다양한 인물들이 출입하였을 것이다. 곧 충선왕의 隨從臣들이 江南 佛敎界의 智延(1257~1335)·子儀(생몰년불명)·法禎(생몰년불명)·普度(생몰년불명)·普容(1251~1320)·明本(1263~1323) 등의 승려들을 大都로 초청하거나 隨從臣을 통해 연결하였음을 보아 餘他 分野의 인물들과 교류하였을 것이고, 江南의 佛敎界에 求法을 위해 왔던 日本人 僧侶와도 접촉했을 가능성도 있다.<sup>64)</sup> 이들에 대해서는

63) 이는 그의 문집에서 위에 列擧된 인물들의 대부분을 위해 지은 詩賦가 수록되어 있음을 통해 알 수 있다.

64) 忠宣王이 尊崇하였던 中峰明本으로부터 佛法을 배운 일본승려는 遠谿祖雄·无隱元晦(?~1358) 등 7人이고(卍元師蛮『延宝伝燈錄』권5, 元杭州天目山中峯明本法嗣), 그의 門下에 다녀 간 인물은 10餘人에 달한다(持正 錄, 『天目明本禪師雜錄』).



향후 새로운 자료의 발굴을 통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충선왕의 여러 部門에 걸친 隨從臣들은 元의 文人·科學者들과의 교류를 통해 각종 선진문물을 수용하려고 노력하였다. 隨從臣들의 個人的인 嗜好에 따라 專門分野를 정하여 性理學·科學技術 등의 분야를 學習하여 귀국하였는데, 이에는 충선왕에 의한 按配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 결과 白頤正(1247~1323)이 성리학을,<sup>65)</sup> 崔誠之(1265~1330)가 授時曆法을 學習하여 온 것<sup>66)</sup>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을 것이다.

#### IV. 李齊賢 等 3人의 交遊

이제현, 권한공 그리고 주덕윤의 교류는 주덕윤이 충선왕의 부름을 받은 1319年(延祐6) 冬 이후에 이루어졌는데, 이 해부터 3人的 履歷事項을 충선왕, 주덕윤을 추천했던 趙孟頫의<sup>67)</sup> 그것과 함께 정리하면 다음의 <表 2>와 같다.

65) 『淡庵逸集』권2, 「白頤正行狀」; 『樸翁稗說』前集권2.

66) 충선왕이 元의 太史院의 曆數가 정밀함을 보고서 崔誠之에게 內帑金 100斤을 下賜하여 스승을 구해 배우게 하였다. 이로 인해 최성지는 日月·五星의 度數를 推算하여 冊曆을 제작하는 陰陽推步法에 造詣가 있었는데, 고려에 전하여 이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한다(『고려사』108, 열전21, 崔誠之; 『익재난고』권7, 「崔誠之墓誌銘」; 『東賢史略』, 崔誠之; 『世宗實錄』156, 「七政算內篇序文」).

67) 조맹부가 1320年(延祐7) 그 自身과 夫人의 病으로 인해 귀향할 때, 충선왕에게 주덕윤을 추천한 것은 그의 同門後學인 주덕윤이 詩書에 능했던 점을 고려하였을 것이다.

〈表 2〉 李齊賢·權漢功·朱德潤의 履歷事項<sup>68)</sup>

時 期	履歷事項(典據)
1319年(延祐6) 忠宣王45歲 趙孟頫65歲 權漢功57歲? 李齊賢33歲 朱德潤26歲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 10. 贊成事 權漢功을 元에 보내 聖節을 賀禮하게 함(史34).</li> <li>· 3. -. 忠宣王이 浙江行省 寶陀山에 이르렀다가 이해의 年末에 大都로 돌아옴. 이때 從臣 權漢功·李齊賢 등이 隨從함(史34忠宣王讓位後條).</li> <li>· 4. -. 趙孟頫가 病으로 歸鄉(湖州)하면서 忠宣王에게 詩文을 올림(松雪齋文集5留別藩王).</li> <li>· 9. 6. 忠宣王이 宣政院使 張閻·平章政事[平章相國, 行省丞相 布哈?]·王子(藩王 昶), 從官(權漢功·李齊賢·太子府參軍 洪淪·奇長老·白尙書) 등을 거느리고 西天目山 幻住庵의 中峯明本을 訪問함(天目中峯和尚廣錄1上示衆). 이때 李齊賢이 明本과 詩文을 唱和함(天目中峯和尚廣錄29次韻酬李仲思宰相四首).</li> <li>· 9. -. 忠宣王이 杭州에서 吳壽山·湯炳龍에게 李齊賢의 肖像·贊을 制作하게 하자, 湯炳龍이 9월 15일에 贊을 지음(亂藁4延祐己未子從於忠宣王降香江南之寶陀窟...). 이때 許謙이 李齊賢의 畫像에 대해 贊을 짓고, 陳樵가 李齊賢의 詩文에 和答하고 餞別의 詩文을 贈呈함(許白雲先生文集4李齊賢眞贊/鹿皮子集2答李齊賢言別·4分題送李齊賢三首).</li> <li>· 9. 22. 朱德潤이 上京을 위해 揚子江을 건너감(文集8延祐六年九月廿二日渡揚子江).</li> <li>· 10. -. 趙孟頫가 嘉定州 大報國園通寺의 寺記를 撰하자 忠宣王이 篆額을 씌움(十二硯齋金石過眼錄18).</li> <li>· 10. -. 李齊賢이 虎丘寺에서 忠宣王을 隨行하여 大都로 돌아감(亂藁1虎丘寺1月北上重遊). 이때 權漢功이 鎮江縣 甘露寺에서 詩文을 지음(東文選16甘露寺多景樓).</li> <li>· 겨울[冬]. 朱德潤이 忠宣王의 徵召에 應해 上京하면서 河南江北行省 淮安路에서 硯銘詩를 지음(文集1端石硯銘).</li> <li>· 年末?. 忠宣王이 趙孟頫의 薦舉를 받아 朱德潤을 應奉翰林文字·同知制誥兼國史院編修官에 任命되게 함(文集附錄朱德潤墓志銘).</li> </ul>

68) 以下の 典據에서 史는 『高麗史』, 節要是 『高麗史節要』, 亂藁는 『益齋亂藁』, 文集은 『存復齋文集』, 續集은 『存復齋續集』이며, 그 외의 典據는 대표적인 것만 提示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張東翼 2009年b의 該當時期를 참조하기 바란다.

<p>1320年(延祐7) 忠宣王46歲 權漢功58歲? 李齊賢34歲 朱德潤27歲</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3. 應奉翰林文字 朱德潤이 忠宣王(瀋王)을 侍從하여 仁宗을 謁見함 (朱德潤墓誌銘).</li> <li>· 4. -. 忠宣王이 時事가 變할 것을 알고서 患을 避하기 爲 御香을 내리기를 請하여 江南으로 徙남 (史34忠宣王讓位後條). 이때 忠宣王이 外方으로 逐出되게 됨에 따라 太皇太后 答己가 四明山 天童寺에 가게 하였고, 朱德潤이 隨從하자, 忠宣王이 表를  올려 朱德潤을 征東行省 儒學提舉로 任命함 (朱德潤墓誌銘).</li> <li>· 5. -. 朱德潤이 歸鄉함에  의해 이루어지지 못함 (續集書贈故朴公秋山圖).</li> <li>· 6. -. 忠宣王이 鎮江路 金山寺에서 逮捕됨 (史35·124朴景亮).</li> <li>· 7. -. 李齊賢이 高麗의 知密直司事에 任命되고, 科擧의 考試官이 되고 (史35), 이어서 高麗國王府斷事官에 任命됨 (牧隱文藁16李齊賢墓誌銘).</li> <li>· 12. 4. 忠宣王이 吐蕃 撒思結에 流配됨 (史35同日條).</li> </ul>
<p>1321年(至治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 忠宣王의 隨從臣 權漢功·金廷美·蔡洪哲을 下獄시킴 (節要24).</li> <li>· 4. 初. 朱德潤이 大都에서 姑蘇로 歸鄉함 (文集2雲龍山石佛寺記·7至治元年夏舟過彭城…).</li> <li>· 4. 29. 權漢功·蔡洪哲이 遠島에 杖流됨 (史35).</li> <li>· 10. 6. 忠宣王이 吐蕃의 撒思結에 到着함 (史35忠肅王8.11.13條).</li> </ul>
<p>1322年(至治2) 忠宣王48歲 權漢功60歲? 李齊賢36歲 朱德潤29歲</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해의 初에 李齊賢이 元에 간  것으로 推測되는데, 到着하기 전에 忠宣王이 西蕃으로 流配됨 (牧隱文藁16李齊賢墓誌銘).</li> <li>· 2. -. 英宗이 柳林에서 游獵을 한 후 朱德潤을 召還하여 이를 圖·賦하게 함 (文集3雪獵賦并書/朱德潤墓誌銘).</li> <li>· 봄[春]. 朱德潤이 還京하여 高麗宰相 朴某(朴義?)를 爲 秋山圖를 製作함 (續集書贈故朴公秋山圖).</li> <li>· 6. 15. 趙孟頫가 湖州에서 別世함 (69歲)(趙孟頫行狀).</li> <li>· 8. 21. 權漢功·蔡洪哲 등이 瀋王 暠를 國王으로 擁立하기 爲 中書省에 上書하고자 함 (史35).</li> </ul>
<p>1323年(至治3) 忠宣王49歲 權漢功61歲? 李齊賢37歲 朱德潤30歲</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 26. 忠宣王이 吐蕃 朶思麻宜慰司에 量移됨 (史35).</li> <li>· 4. 20. 李齊賢이 忠宣王을 謁見하기 爲 京師를 出發함 (亂藁2至治癸亥4月21日發京師).</li> <li>· 이때 朱德潤이 李齊賢에게 餞別의 詩文을 贈呈함 (文集10送李益齋之臨洮).</li> <li>· 이때[至治末紀], 朱德潤이 同僚 柯九思(字敬仲)와 함께 (一時?) 歸鄉함 (文集七祭柯敬仲博士文).</li> <li>· 9. 4. 晉王 也孫鐵木兒가 卽位함[泰定帝]. 이때 忠宣王이 京師로 召還됨 (史34忠宣王讓位後條).</li> <li>· 이 무렵에 朱德潤이  다시 上京한  것으로 推測됨[筆者의 所見].</li> </ul>

1325年(泰定2) 忠宣王51歲 朱德潤32歲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 13. 忠宣王이 元의 燕邸에서 昇遐함(51歲)(史34讓位後).</li> <li>· 5. 15. 忠宣王의 門士들이 祭를 올릴 때 朱德潤이 祭文을 지음(文集7祭太尉瀋王文).</li> </ul>
1326年(泰定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해에 朱德潤이 江浙行省의 鄉試에 及第하여 會試에 應試하러 온 蔡恒之를 京師에서 만남(續集嘉禾蔡恒之下第歸序).</li> </ul>
1327年(泰定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 -. 朱德潤이 京師에서 鄉里로 돌아감(續集送劉伯城之中山序).</li> <li>· 春. 朱德潤이 父母의 疾病으로 吳中으로 歸還함(續集題王左丞<sup>君亮</sup>賦藥後).</li> </ul>
1338年 (後至元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 -. 燕南人 梁載가 撰하고, 右政丞 權漢功이 쓴 金剛山 表訓寺의 碑가 建立됨(續東文選21遊金剛山記).</li> </ul>
1339年 (後至元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 12. 元의 使臣 頭麟 등이 忠惠王을 逮捕하여 歸還하자, 金倫·李齊賢·金光載 등이 隨從함(史36).</li> </ul>
1340年 (後至元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 11. 忠惠王이 元에서 돌아오자(史36), 李齊賢·金光載 등도 함께 돌아옴(亂藁4庚辰4月將東歸題齊化門酒樓/牧隱文藁17金光載墓誌銘).</li> </ul>
1342年(至正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해에 隱遁하고 있던 李齊賢이『樸翁稗說』을 지음(牧隱文藁16李齊賢墓誌銘).</li> </ul>
1343年(至正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 15. 宰相과 國老들이 中書省에 上書하여 忠惠王의 罪를 赦해 줄 것을 要請함. 이때 權漢功은 懷疑의이었으나 金永嗽·金倫 등의 主張에 의해 李齊賢이 書狀을 草함(史36).</li> </ul>
1346年(至正6) 李齊賢60歲 朱德潤53歲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閏10. -. 高麗人 朴少陽이 張翥의 推薦書를 가지고 京師에 있던 朱德潤을 訪問함. 朴少陽은 朱德潤으로부터『論語集註』·『大學集註』 등을 傳受받았고, 그의 父 朴允文의 廬墓事實에 대한 詩·畫를 請하여 받음(續集密陽朴質夫廬墓圖記/稼亭集9寄朴持平詩序).</li> </ul>
1348年(至正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 17. 政丞 王煦 등이 李齊賢을 元에 보내 表를 올려 嗣王으로 祺(恭愍王)과 毗(忠定王)를 選擇하여 冊封하여 줄 것을 要請함(史37). 이때 李齊賢은 1319年(延祐6) 杭州에서 吳壽山이 그린 自身の 肖像畫를 다시 찾음(亂藁4延祐己未予從於忠宣王降香江南之寶陘窟...).</li> </ul>
1349年(至正9) 朱德潤56歲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을[秋]. 朱德潤이 姑蘇驛에 머문 黃潛을 찾아가『存復齋集』을 傳함(前揭資料/文集附錄).</li> <li>· 閏7. 15. 黃潛이『存復齋集』의 序文을 지음(同上).</li> <li>· 9. -. 權漢功이 開城에서 別世함(87歲推定)(史37).</li> </ul>
1350年 (至正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 -以後. 朱德潤이 試院의 執事[執事試院]로서 杭州[錢唐]에 滯在함(續集玉山縣義學記).</li> </ul>
1351年 (至正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 -. 李齊賢이 政丞을 攝行하여 征東省事를 權斷하게 함(史37).</li> </ul>
1352年 (至正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해에 江浙行省 平章政事 三旦八이 朱德潤을 불러 行省照磨에 任命함. 이어서 長興州尹[攝守長興]에 任命됨(朱德潤墓誌銘).</li> </ul>

1357年 (至正17)	· 5. 11. 李齊賢이 致仕함(71歲)(史39).
1365年 (至正25)	· 6. 17. 朱德潤이 姑蘇에서 別世함(72歲)(朱德潤墓誌銘).
1367年 (至正27)	· 7. 29. 李齊賢이 開京에서 別世함(81歲)(史41).

以上을 통해 볼 때 이제현 등의 세 사람이 만나게 된 것은 충선왕의 만권당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 것 같다. 그렇지만 세 사람이 만권당에서 체재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는데,<sup>69)</sup> 곧 주덕윤이 충선왕의 부름을 받아 上京한 시점에서 얼마 오래되지 않아 권한공과 이제현은 고려에 歸還하였던 것 같다.

이러한 짧은 만남에서도 세 사람은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시문을 창작하기도 하였고, 주덕윤은<sup>70)</sup> 이제현을 위해 「燕山曉雪圖」를 제작하기도 하였다.<sup>71)</sup> 또 이제현은 주덕윤과 함께 大都의 동편에 위치한 市場에 가서 屏風에 그린 書畫를 觀賞하면서 당시에 書畫로 이름이 높았던 李衍(1245~1320) · 趙孟頫 · 任仁發(1255~1327)<sup>72)</sup> · 白雲青山張道士(六一道士 張彥輔로 추정됨)

69) 이에 비해 만권당에 장기간에 걸쳐 체재하고 있었던 권한공과 이제현은 수많은 中原의 風物을 描寫한 시문, 元의 문인과 唱和했던 兩者의 시문을 함께 남기도 하였다[池榮在 1980年 · 1998年 · 朴現圭 1991年].

70) 현존하는 주덕윤의 圖畫는 「林下鳴琴圖軸」 · 「松溪放艇圖卷」 · 「秀野軒圖卷」(至正24) 등이, 書는 「致吳季實教諭尺牘」이 있다(『中國繪畫史圖錄』, 1981 ; 『宋元尺牘』, 2000). 元代의 繪畫史에서 주덕윤의 위상에 대한 검토로 鈴木敬 1988年이 있다.

71) 『益齋亂藁』권2, 「雪」, “姑蘇朱澤民 善畫山水 嘗爲我作燕山曉雪圖”.

72) 그는 松江府 上海人으로 字는 子明, 號는 月山인데, 水利專門家로서 河 및 海堤의 工程에 寄與한 바가 많았다. 至大初에 嘉興路同知가 되었고, 浙東宣慰副使로 致仕한 人物로 繪畫에 能하였다고 한다(『梧溪集』권6, 「謁浙東宣慰副使致仕公及其子台州判官墓有後序」; 『松江府志』권79, 名蹟志, 青浦縣, 元浙東宣慰副使任仁發墓 : 宗典 1959年 ; 沈令昕 1982年). 그의 書法은 宋代의 李公麟과 비슷하다고 하며(寫實的 傳統), 그가 그린 「雙馬手卷」을 奇皇后의 兄인 參知政事 奇勳이 所藏하고 있었다고 한다(『익재난고』권4, 「奇參政宅月山雙馬手卷」).

· 劉道權(생몰년불명)<sup>73)</sup> · 道士蕭月潭(月潭長老)<sup>74)</sup>, 그리고 唐代의 畫家인 偉偃 등의 작품을 品評하기도 하였다.<sup>75)</sup> 이러한 교유에 의해 후일 이제현은 주덕윤의 畫法과 그로부터 들은 書畫의 技法에 대해 기술하기도 하였다.<sup>76)</sup> 그리고 주덕윤도 충선왕이 체포된 이후 歸鄉하면서 권한공과 이제현에게 離別以後의 心情을 시문으로 짓기도 하였고, 이제현이 티베트에 유배된 忠宣王을 拜謁하기 위해 서쪽으로 떠날 때 시문을 지어 餞別하기도 하였다.<sup>77)</sup>

그리고 충선왕이 시세의 변화에 따른 禍를 피하여 강남으로 떠난 1320년(延祐7) 4월 이후 만권당의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이곳에서 종유 하던 문인들도 모두 흩어지게 되었던 것 같다.<sup>78)</sup> 이러한 형편에 의해 주덕윤도 같은 해 5월 歸鄉하여 1322년(至治2) 2월 徵召될 때까지 姑蘇에 머물고 있었다.<sup>79)</sup>

또 고려에 귀국해 있던 권한공은 다음해 1월 忠肅王에 의해 체포되어

73) 그는 廬陵人으로 山水畫에 능했던 인물로서(『新元史』권242, 列傳132, 藝術, 李時附劉道權), 張彥輔와 함께 至正年間이래 이름이 가장 널리 전해졌다고 한다(『牧隱詩藁』권10, 「謝禹四宰送水墨山水 …」).

74) 原文에는 ‘月潭長老’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淮出身의 道士로서 道釋人物의 描寫에 능하였다고 한다(『圖繪寶鑑』권5, 道士蕭月潭).

75) 『益齋亂藁』권4, 「和鄭愚谷題張彥甫雲山圖」, 「劉道權山水」, 「月潭長老二畫-涉公降龍·豐干伏虎」; 『櫟翁稗說』後集.

76) 『櫟翁稗說』後集권1.

77) 『存復齋文集』권8, 「別後懷權贊善·李仲思二宰」, 卷10, 「送李益齋之臨洮」; 『存復齋續集』, 「別後懷權贊善」.

78) 현재 日本에서 忠宣王의 願文과 함께 ‘潘王府’라는 長方形의 印章(가로 1.3, 세로 3.2cm)이 찍힌 書籍들이 發見되고 있는데(南禪寺所藏 『佛本行集經』·『佛說解節經』等 : 張東翼 2004年), 이들 冊子는 만권당에 所藏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이들 冊子의 一部는 元에 남겨져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하나의 事例가 北京市 智化寺에 所藏되어 있는 普寧寺版의 『付法藏因緣經』1冊이다(許惠利 1987年).

79) 이후 이들 세 사람의 교유는 政局의 불안으로 인해 3인이 함께 相逢한 것은 없었던 것 같고, 권한공과 이제현이 각각 大都에 放逐되었을 때 주덕윤과 相面했던 것 같다. 그러다가 1327年(泰定4) 4월 주덕윤이 姑蘇에 귀환한 이후에는 그를 방문한 高麗人을 통해 消息을 주고받았을 것이다.

遠島에 杖流되었는데, 이것이 후일 그가 忠肅王과 瀋王 鬮사이의 高麗王位의 쟁탈전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後者의 편에 서게 되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이후 이제현은 忠肅王을, 권한공은 瀋王 鬮를 받드는 세력의 上層部가 되어 各各 兩側의 주장을 代辦하는 文翰을 담당하면서(主文)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달리하게 되었으나, 개인적인 친분은 그대로 유지한 채 모두 最高의 지위인 首相에 이르렀다.

이러한 세 사람의 교류에서 이루어진 서로간의 시문의 창화 및 이를 통한 학문적인 交感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하는 것이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위의 다섯 수의 시문을 통해 어떤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인데, 이들 시문의 내용에 대해 검토해보기로 하자.

먼저 이들 시문을 再構成해보고, 이를 翻譯하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sup>80)</sup>

**【權漢功의 詩文】**

權贊善

德淸 艤舟亭 壁上有燕山史明詩 次韻

水氣迷雲欲上干 艤舟亭畔暫偷閑

長橋轟轟成圖畫 淺瀨珊珊響珮環

舳舻深依黃華曲 招提半隱翠林間

溪邊魚鳥非相識 猶戀天香去又還

辰韓權漢功

德淸 艤舟亭의 壁上에 燕山史明의 詩가 있어서 次韻함.

물 기운이 구름을 아득하게 하여 欄干에 오르고자 하는데

艤舟亭 언덕에서 잠시나마 잠을 내어 한가로이 노닐었네.

기다란 다리는 우뚝하게 솟아서 그림처럼 길러있고

얇은 여울은 돌돌거리며 패옥의 소리를 내는구나.

작은 배는 깊숙하게 菊花가 핀 구비에 의지해 있고

80) 이의 翻譯과 注釋은 東洋大學校 教養學部 姜求律教授의 諮問에 의해 이루어졌다.

절간은 푸른 수풀 사이로 반쯤이나 숨어있네.  
 시냇가의 고기와 새들은 서로들 알지 못하지만  
 천연의香氣를 깊이 思慕하여 갔다가 또 돌아오네.  
 辰韓人 權漢功

德淸驛 壁畫弄玉與蘇史乘鸞奔月 有石烈<sup>石烈</sup>紇伯玉詩 次韻  
 寶靨花鈿百寶粧 玉簫明月滿中窗  
 彩鸞一去無尋處 惆悵三山路杳茫  
 德淸驛의 壁에 弄玉과 蕭史가<sup>81)</sup> 난새를 타고 달로 달려가는 것을 그렸는  
 데, 石烈 紇伯玉의 詩가 있어서 次韻함.  
 寶靨花로 만든 꽃비녀에 백가지 보배로 장식하니  
 밝은 달 아래 옥 통소 소리 가운데 창에 가득 차네.  
 화려한 채색의 난새가 한 번 감에 찾을 곳이 없으니  
 슬프게도 三山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아득하네.

**[李齊賢의 詩文]**

朱澤民秀才見示美人屏風四詩 次韻  
 鼓琴 鷄林李齊賢  
 憶年始二八 學彈綠綺琴  
 得升君□□ 每奏太古音  
 玉軫比君德 朱絃□□□□<sup>82)</sup>  
 願言相纏結 調成雙鳳吟  
 朱澤民 秀才가 美人 屏風을 보여주는데 4首의 詩가 있어서 次韻함.  
 거문고를 뜯으며(鼓琴) 鷄林人 李齊賢  
 생각해보니 처음 열여섯 살에  
 綠綺琴을<sup>82)</sup> 演奏하는 것 배웠다네.  
 {君의 □□을 얻어 ... 하다가}

81) 蕭史와 弄玉의 夫婦에 대한 逸話는 『後漢書』권83, 逸民列傳73, 矯慎列傳의 注에 引用되어 있는 劉向의 『列僊傳』에 수록되어 있다.

82) 옛날의 거문고[琴]로서 『古今疏』에 의하면 '漢代에 司馬相如가 '玉如意賦'를 짓자, 梁王이 기뻐하여 綠綺琴을 위시한 여러 가지의 寶物을 주었다.'라는 句節이 있다고 한다.



매번 太古의 소리 演奏했었네.  
 옥 거문고 말뚝은 임금 덕에 견주고  
 [붉은 줄은 □□을 하니.]  
 원컨대 서로서로 맺고 맺어서  
 雙鳳吟을 조정해 이루리.

佩幌

結褵到君舍 奄忽1餘年  
 丹心期白首 皎日在青天  
 女蘿附長松 弱質能自持  
 願保栢<sup>栢</sup>舟節 爲君守深閨  
 수건을 차고서(佩幌)  
 수건을 차고<sup>83)</sup> 그대 집에 이른 것이  
 어느덧 십여 년의 세월이 지났네.  
 一片丹心으로 흰머리 될 때까지를 期約하고  
 흰 해는 푸른 하늘에 걸려있네.  
 女蘿가 키 큰 소나무에 붙어있으니  
 연약한 자질로도 능히 스스로 지탱하네.  
 원컨대 잣나무 배의 節介를<sup>84)</sup> 保存하여  
 그대 위해 깊은 閨房을 지키리라.

觀書

亭"綠窗妹 灼"鸞鳳儀  
 潛心烈女傳 古訓庶莫違  
 侯門豈不貴 媒妁亦有辭  
 難將芝蘭質 備君歌舞姬

83) 結褵는 옛날 딸을 시집보낼 때 하는 일종의 儀式으로 어머니가 딸에게 수건을 채워 주면서 시집을 가서 시어른들을 잘 모시고 집안일을 잘 하라는 뜻을 담고 있다.  
 84) 栢舟節(栢舟節)은 『詩經』, 鄘風의 栢舟序에 의하면, 衛의 世子인 共伯이 일찍 죽었을 때, 그 妻인 共姜이 節義를 지켜 他人에게 再嫁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盟誓하면서 이 詩를 지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栢舟節(栢舟操)'은 守節하면서 他人에게 再嫁하지 않는 節介를 指稱한다.

책을 보며(觀書)

아름다운 것은 푸른 窓門의 아가씨요  
 찬란한 것은 난새와 鳳凰의 모양이네.  
 列女傳에 마음을 꼭 잠가 읽으니  
 옛날 訓戒가 거의 어긋남이 없네.  
 諸侯의 家門이 어찌 高貴하지 아니하랴?  
 仲媒하는 사람이 또한 말을 하는구나.  
 芝草와 蘭草 같은 才質을 가지고서  
 그대 위해 노래하고 춤추기가 어렵네.

倦織

含情不自聊 脈 / 臨瓊戶  
 非關被春惱 倦織機中素  
 容華安足恃 貝錦生嬌妬  
 世事諒如斯 曾參困投杼  
 베짜기 고달과서(倦織)  
 思慕하는 情이 스스로 便安하지 않아  
 繼續하여 좋은 집에 다다랐네.  
 봄 걱정을 입은 탓이 아니라  
 흰 비단 짜기가 고달과서이네.  
 아름다운 얼굴 어찌 죽히 믿으리?  
 고운 비단에서<sup>85)</sup> 嫉妬가 생겨나네.  
 세상일 眞實로 이와 같으니  
 曾子도 북 던지는 일에<sup>86)</sup> 곤란하네.

85) 貝錦은 조개 무늬를 닮아 한결같이 아름다운 비단을 指稱한다.

86) 이는 『戰國策』의 「秦策」에 나오는 逸話로 費地域의 人物인 曾參의 母가 他人의 數次에 걸친 曾參에 대한 거짓말에 속아서 북을 던지고〔投杼〕越牆하여 逃亡하였다는 것이다. 이 詩文에서 ‘投杼’는 根據가 없는 말로 가장 믿는 사람의 마음을 뒤흔드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고 李齊賢의 다른 詩文에서도 曾參에 대한 句節이 있다(『益齋亂藁』권2, 「次韻白文學尙書見贈」, ‘投杼惜曾參’).

이들 시문 중에서<sup>87)</sup> 권한공의 작품은 浙江省 湖州路(現 湖州市) 德清縣에 위치한 艤舟亭의<sup>88)</sup> 壁上에 쓰여 있는 燕山 史明의<sup>89)</sup> 詩를 次韻한 詩와 德清驛의 弄玉과 蕭史가 난새를 타고 달로 달려가는 壁畫에 덧붙여 있는 紇石烈(號는 伯玉)의<sup>90)</sup> 詩를 次韻한 시이다. 이 시의 題名이나 내용을 통해 이 자료가 주덕윤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알 수 없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것으로 추측되는 주덕윤의 시문도 찾아지는데(『存復齋續集』所收), 이를 轉載하면 다음과 같다.<sup>91)</sup>

「□<sup>暮</sup>登德清樵樓」  
 萬馬擁貔貅 暮登城上樓  
 哀笳風送客 長劍月臨罇  
 闕外分邊計 燈前借箸籌  
 二城如可後<sup>復</sup> 江面更何憂

권한공과 주덕윤의 시문의 형식이나 내용에 있어서는 어떠한 관련성을 찾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德清驛이라는 素材는 同一할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같은 場所에서 逍遙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진 작품임을 알 수 있다. 곧 권한공의 ‘물 기운이 구름을 아득하게 하여 欄干에 오르고자 하는데, 艤舟亭 언덕에서 잠시나마 잠을 내어 한가로이 노닐었네. 水氣迷

87) 이들 시문의 문학적 수준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는 필자의 연구영역에 속하지 않기에 언급할 능력이 없다. 다만 필자가 느낀 所感은 권한공과 이제현이 중국의 古典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그들의 여타 시문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88) 德清縣은 浙江省 湖州路 烏程縣(吳興)의 남쪽에 위치해 있었고, 艤舟亭은 湖州에 德清縣을 거쳐 餘杭으로 流入하는 餘不溪(東笕溪)의 川邊에 있던 亭子로 추측된다.

89) 燕山 史明은 어떠한 인물인지 알 수 없다.

90) 이 자료에는 ‘石烈紇’로 되어 있으나 ‘紇石烈’의 誤字일 것이고, 號를 伯玉으로 사용한 紇石烈은 어떠한 인물인지 알 수 없다.

91) 인용된 시문에서 添字는 臺灣中央研究院 漢籍電子文獻資料庫에 登載되어 있는 『存復齋續集』에서 달리 표기되어 있는 文字이다.

雲欲上干 艤舟亭畔暫偷閑’, 朱德潤의 ‘수많은 말들이 勇猛한 軍士를 護衛하는데, 저녁 무렵에 城上의 樓閣에 오른다. 萬馬擁貔貅 暮登城上樓’는 같은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sup>92)</sup>

이들 작품이 만들어진 德淸驛에 권한공이 주덕운과 함께 이곳에 到着하여 閑暇한 틈을 타서 각각 시문을 지어 서로에게 증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언제 권한공과 주덕운이 相逢하여 함께 德淸地域을 遊覽하였을까?하는 問題가 提起된다. 두 사람의 行편과 여러 情況을 고려해 볼 때, 1319년(延祐6) 충선왕이 御香을 받들어 浙江行省 寶陀山에 이르렀다가 浙江地域을 遊覽하면서 各地의 儒學者·高僧 등을 訪問하였을 때일 것이다. 당시 忠선왕은 9월에 杭州에 있었는데, 이곳에서 餘杭으로<sup>93)</sup> 와서 餘不溪로 北上하여 권한공의 시문처럼 물안개가 피어오르고 菊花가 핀 晚秋에 德淸縣을 거쳐 湖州로 나갔던 것 같다.<sup>94)</sup>

현재 권한공의 시문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아 그의 문한적 능력이 제대로 평가된 적이 없지만, 당시에서 높이 평가받았던 것으로 추측된다.<sup>95)</sup> 이는 1354년(至正14, 공민왕3) 李穡(權漢功의 孫婿)이 廷試에 及第한 후 一時 歸國할 때, 遼陽行省의 崖頭驛의 驛舍에 권한공의 시문이 걸려 있는 것을 보았다는 사실을 통해 類推할 수 있다.<sup>96)</sup> 또 그는 1338년(後至元4,

92) 또 후일 주덕운은 이때 權漢功(體泉君)을 만나 시문을 장화했음을 述懷하고 있고, 이 시에서 사용되었던 ‘舡艦’이라는 용어를 驅使하고 있다(『存復齋文集』권9, 『贈江少卿4景圖』).

93) 이때 一行中の 한 사람인 이제현이 餘杭에 머물면서 賓客을 접대하고 事務를 處理하고 있었던 자료가 찾아진다(『櫟翁稗說』後集권1, “昔嘗客于餘杭 人有種蘭盆中 以相惠者 置之几案之上 方其應對賓客 酬酌事物 未嘗其香焉 …”).

94) 그렇다면 주덕운은 忠선왕이 浙江地域을 遊覽할 때 왕의 초청을 받아 陪行하다가 그 해의 末에 大都로 徵召되었음을 알 수 있다.

95) 당시의 文人인 白元恒(生沒年不明)은 자신의 시문이 권한공의 그것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自言不及權漢功詩遠矣]고 하였다(『櫟翁稗說』後集권2).

96) 『목은시고』권3, 『崖頭驛 有禮泉權政丞詩 其一聯云 野澗民居樹 天低馬入雲 其形容遼野

忠肅王復位7) 2월 고려에서 활약하고 있던 燕南人 梁載가 撰한 「金剛山表訓寺碑」를 썼다고 한 점을<sup>97)</sup> 보아, 그의 筆體가 당시에서 어느 정도로 인정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다음으로 이제현의 작품은 詩題에서 提示된 것처럼 朱德潤이 「美人圖」를 그려서 보여준 屏風의 題記로 쓴 4首의 시에 次韻한 것으로, 「鼓琴」·「佩幌」·「觀書」·「倦織」 등이다. 현재 주덕윤의 「美人圖」가 존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으나, 그의 문집에는 이때 이제현에게 보여준 시문으로 추정되는 4首의 시문이 수록되어 있다. 곧 「題撫琴士女」·「誦書」·「倦織」·「佩巾」 등으로 이의 내용을 轉載하면 다음과 같다.<sup>98)</sup>

「題撫琴士女」	
織織柔理手	爲君理素琴
閒作求凰操	早歲得知音
婉容更清歌	願結百年心
含情語夫子	莫待白頭吟
「誦書」	
笄年受傳訓	朝夕誦母儀
進御嚮鳴玉	婉順禮無違
雞鳴思勸戒	衿纓備行辭
千金聘窈窕	今古有班姬
「倦織」	
處女顏如花	懷春出庭戶
明粧落飛鳥	織腰如束素
層城歡未合	蛾眉空慳妬
織城回文詩	紗窓捲機杼

無復有限 …

97) 『續東文選』 권21, 「遊金剛山記」.

98) 『存復齋文集』 권8, 詩.

## 「佩巾」

妾聞古貞女	委身期百年
白璧雖重寶	凜焉弗移天
秋風日夕至	班扇能久持
安得巾箱籠	貯妾黃金閨

이들 시문을 이제현의 시문과 비교하면 每句節의 끝 글자[終字]는 모두 같은 글자이므로, 이제현의 詩題와 같이 주덕윤이 美人圖를 그린 후 題記로 작성하여 이제현에게 보여준 작품임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兩者의 題名이 달리 表記되어 있는데, 곧 「題撫琴士女」은 「鼓琴」으로, 「誦書」는 「觀書」로, 「佩巾」 「佩幌」로 달리 되어 있고, 「倦織」만은 同一하다.<sup>99)</sup>

이는 이제현이 주덕윤의 題名에서 몇 개의 글자가 高麗의 歷代帝王의 이름과 같은 글자이기에 避諱를 위해 改題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곧 「佩巾」→「佩幌」는 巾字가 太祖의 御諱인 建字와, 「題撫琴士女」→「鼓琴」은 撫字가 惠宗(2代)의 御諱인 武字와 각각 同音이고, 「誦書」→「觀書」의 誦字는 穆宗(7代)의 御諱이다. 고려시대에는 帝王의 이름과 같은 글자 또는 同音의 文字조차도 다른 글자로 改字하였고, 불교·유교 등의 經典의 경우에는 缺筆[缺畫]하였다. 당시의 대표적 유학자인 이제현이 주덕윤의 題名을 그대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은 전혀 없을 것이다.

이들 시문에 의해 이제현과 주덕윤의 交유관계의 一面을 엿볼 수 있는데, 이 자료 이외에도 두 사람의 交유관계가 긴밀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 곧 이제현은 1342년(至正2) 여름에 지은 『櫟翁稗說』의 序文에서 자신의 號인 '櫟翁'의 字意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99) 이들 두 사람의 詩文의 順序가 달리되어 있는 것은 II節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제현의 시문은 하나의 종이에 詩文 1首씩을 쓴 것이다. 후일 이를 적절히 裁斷하여 連接할 때 順序가 錯亂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대개 櫟字는 樂字의 音을 따른 것이다. 그러나 材木이 되지 못해 (伐木되  
는) 害를 避하는 것은 나무에게는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樂字를 붙인 것이다.  
내가 일찍이 仕宦하다가 스스로 물러나 翁졸함을 지키다가 號를 櫟翁이라 하  
였으니, 이는 좋은 材木이 되지 못함으로써 壽를 누릴까하는 뜻이다.<sup>100)</sup>

그런데 주덕윤도 이의 뜻과 類似한 글을 지었는데, 『存復齋文集』卷1,  
「櫟壽齋銘」이 바로 그것으로서, 이를 轉載하면 다음과 같다.

龜靈而樵 雉文而翳 材爲身累也 豈惟木與人 小年非菌 大年非椿 櫟之壽也 食吾眞

이처럼 이제현이 1342년(至正2)에 『櫟翁稗說』을 저술할 때 주덕윤은 鄉  
리에 隱居하고 있었으므로 두 사람의 交信에 의해 위와 같은 두 개의 글이  
만들어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青年時節의 두 사람이 교류하고 있을  
때 이제현이 주덕윤의 글을 읽었거나, 아니면 두 사람의 교류가 친밀하였  
기에 후일에도 각각의 思考가 비슷하게 형성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의 選  
擇與否는 判가름하기 어렵지만 이들 자료는 두 사람의 사이가 그만큼 친밀  
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주덕윤이 儒學者로서 지닌 力量은 어느 정도일까? 하는 것이  
아직 검정되지 못했는데, 그와 교류했던 인물들의 글을 통해 일정한 수  
준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가 1346년(至正6) 高麗人 朴少陽  
에게 『論語集註』·『大學集註』 등을 가르쳤다고 하였음을 보아 性理學에 대  
해서도 일정한 知見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이제현도 1319년  
(延祐6) 吳壽山이 그린 그의 肖像畫 옆에 놓인 書架에 『周易』이 備置되어  
있음을 보아 性理學에 대해 觀心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그렇다면 이

100) 『櫟翁稗說』序文, “夫櫟之從樂聲也 然以不材遠害 在木爲可樂 所以從樂也 予嘗從大夫之  
後 自免以養拙 因號櫟翁 庶幾 其不材而能壽也”.

제현과 주덕운의 교유에서 詩文唱和, 書畫에 대한 論議, 그리고 성리학과의 같은 여러 가지의 학문에 대한 토론이 전개되었을 것이다.

## V. 맺음말

이 논문에서는 먼저 忠宣王이 1307년(大德11)의 帝位繼承의 분쟁에서 武宗의 擁立에 성공하여 太子太師에 임명된 이후 大都에서의 그의 活動相에 대해 살펴보았다. 곧 忠宣王은 그와 긴밀한 관계(忠宣王의 甥姪)에 있었던 愛育黎拔力八達의 皇太子時節과 뒤이은 在位期間을 합하여 約13年間에 걸쳐 政界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유교·불교 등의 사상계에서 활약하면서 幕後의 실력자로서 존재하였다. 이때 그는 儒學者들과 연결하여 科擧制의 實施를 貫徹시켰고, 江南出身의 儒學者(南人)들을 중앙정계에 발탁시키기도 하였다. 또 江南의 佛敎敎團을 티베트 佛敎에 薰陶되어 있던 大元蒙古國의 支配層과 연결시켜 주는 架橋의 역할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학문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萬卷堂을 開設하여 많은 文人·儒學者들을 불러 모았는데, 이에 참여했던 인물은 고려에서 徵召된 그의 隨從臣(法從), 太子太師에 임명되기 이전부터 교유하였던 漢人·南人出身의 既成의 文翰官僚, 그리고 蒙古帝國의 官僚로서 立身하려고 하던 江南出身의 文人·儒學者(南人) 등이었다. 忠宣王은 이들을 文翰官僚로 推薦(保薦)하여 임명되게 하거나 文翰官의 職窠가 부족할 때는 자신의 意思에 의해 임명할 수 있는 征東儒學提擧, 瀋陽王府 및 高麗王府의 幕僚인 王傅·斷事官 등에 임명하였다. 이러한 構成員中에서 후일 高麗에 성리학을 受容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部類는 '門士'로 표현된 江南出身의 少壯儒學者層으로 추측된다.

忠宣왕의 만권당에 從遊했던 수많은 文人 중에서 그 자취를 뚜렷하게



남긴 인물은 권한공, 이제현 그리고 주덕윤이다. 이들 사이의 교류는 이제현과 주덕윤의 문집에 一部分이 反影되어 있었지만, 그 친밀도를 분별하기 어려웠다. 筆者가 최근에 찾아낸 이제현과 권한공이 주덕윤에게 贈與한 親筆의 詩文(翰墨)을 통해 이들 사이의 交遊像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 자료는 권한공이 주덕윤과 浙江行省 德清縣에서 머물면서 지은 7言詩 2首, 이제현이 주덕윤의 「美人圖」의 題記에 대한 次韻한 4首 等の 都畵 6首이다. 이들 자료의 所藏處·材質·크기 등은 불분명하여 향후 계속하여 탐색되어야 하겠지만, 당시에 麗·元 兩國 文人間의 交遊相을 고찰하는데 중요한 자료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곧 당시에 兩國의 文人間에는 수많은 시문의 창화가 이뤄졌을 것이지만, 현존하는 문집에는 많이 남아 있지 않다. 또 元人의 문집에는 高麗人에게 贈與한 시문의 일부가 남아 있으나, 그에 和答한 고려인의 시문은 거의 남겨져 있지 않다.<sup>101)</sup> 그렇지만 권한공과 이제현의 시문에 對應한 주덕윤의 시문이 그의 문집에 수록되어 있어, 이들 세 사람의 교류와 학문적 교류의 형편을 살펴볼 수 있기에 從來의 어느 자료보다도 有用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들 자료는 親筆의 翰墨(眞迹)으로서 당시의 眞跡이 거의 남아 있지 않는 현재의 형편에서 여러 면에서 크게 주목될 수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권한공의 경우는 이제현과 달리 그 자취가 거의 없는 점에서 그의 眞迹과 文翰能力을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 자료는 향후 고려후기의 시문 및 書藝分野의 연구에서 큰 위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101) 이에 비해 이제현·이색 등의 문집에는 元人이 그들에게 贈與한 시문이 많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들 시문은 元人의 현존하는 문집에 수록되어 있지 않는 것도 많이 있다(朴現奎 1991年).

## 【참고문헌】

- 高柄翊, 『東亞交涉史의 研究』, 서울대출판부, 1970.
- 金光哲, 「14世紀初 元の 政局動向과 忠宣王의 吐蕃 流配」 『韓國中世史研究』3집, 1996, 290-343쪽.
- 金庠基, 『東方史論叢』, 서울대출판부, 1974.
- 金龍善, 『高麗墓誌銘集成』, 翰林大出版部, 2006.
- 朴現圭, 「李齊賢과 元 文士들과의 交遊攷」 『嶠南漢文學』3집, 1991, 129-158쪽.
- 張東翼, 『高麗後期外交史研究』, 一潮閣, 1994.
- \_\_\_\_\_, 『元代麗史資料集錄』, 서울대출판부, 1997.
- \_\_\_\_\_, 「新資料를 통해 본 忠宣王의 在元活動」 『歷史敎育論集』23·24合집, 1999, 703-745쪽.
- \_\_\_\_\_, 『日本古中世高麗資料研究』, 서울대출판부, 2004.
- \_\_\_\_\_, 「安珣의 生涯와 行蹟」 『退溪學과 韓國文化』44집, 2009a, 189-222쪽.
- \_\_\_\_\_, 『高麗時代對外關係史綜合年表』, 東北亞歷史財團, 2009b.
- 鄭玉子, 「麗末 朱子性理學의 導入에 대한 試考」 『震檀學報』51집, 1981, 29-54쪽.
- 池榮在, 「益齋長短句의 成立」 『中國文學報』4집, 1988, 71-95쪽.
- \_\_\_\_\_, 「益齋 江南行 詩의 研究」 『中國文學報』6집, 1998.
- 大野修作, 『書論と中國文學』, 研文出版, 2001.
- 北村 高, 「高麗王璋의 崇佛」 『東洋史苑』24·25合집, 1985, 117-141쪽.
- 西尾賢隆, 「元朝における中峰明本とその道俗」 『禪學研究』64집, 1985.
- 西上 實, 「朱德潤と瀋王」 『美術史』104집, 1978.
- 櫻井智美, 「趙孟頫의 活動とその背景」 『東洋史研究』56-4집, 1998, 733-784쪽.
- 中川憲一, 「元季의 書風について」 『東洋藝林論叢』, 平凡社, 1985, 289-300쪽.
- 沈令昕, 上海市青浦縣元代任氏墓葬記述, 『文物』1982年 第7期, 1982.
- 趙成山, 「羅振玉收藏整理古代文獻圖籍述略」 『文獻』1994年 第3期, 1994, 212-231쪽.
- 宗 典, 「元任元發墓誌의 發現」 『文物』11집, 1959.
- 周倜 等編, 『中國墨迹經典大全』, 京華出版社, 1998.
- 許惠利, 「北京智化寺發現元代藏經」 『文獻』1987年 第8期, 1987.

Abstract
----------

## Lee Je-hyun(李齊賢), Kwon Han-gong(權漢功) and Chu Teh-jun(朱德潤)

Chang, Dong-ik

I examine into the activity of King Chungseon(忠宣王) who appointed to a teacher of crown prince after Mujong(武宗) succeeded to the throne with his assistance in Beijing. Aeyukyeobalyeokpaldal(愛育黎拔力八達, 仁宗) had close relationship with King chungseon during 13 years from the period of his crown prince to the period of emperor's reign. But king chungseon not participated in the political world, he was active in the world of thought like Buddhism or Confusionism as a man of influence behind the curtain. At this moment, King chungseon accomplished implementation of the state examination, selected confucianists from the south of the Yangtze, played a bridge role for the ruling class and the Buddhist order of the south of the Yangtze.

In this process, king Chungseon called many literary men and confucianists together to gain an academic footing through establishment of the Mangwondang(萬卷堂). The typical figures of Mangwondang were the retainers of Koryeo, existing literary bureaucrats, literary men and confucianists from the south of the Yangtze. He nominated for them as bureaucrat or appointed them to Wangbu(王傅)·Dansagwan(斷事官) as the staff officer of Simyangwang's government or Goryeo government. Among them, the figures that made conditions for accommodation of Neo-Confucianism in Goryeo would be the young confucianists from the south of the Yangtze.

The distinguished scholars of King chungseon's Mangwondang were Lee Je-hyun(李齊賢), Kwon Han-gong(權漢功) and Chu Teh-jun(朱德潤). The collections of Lee Je-hyun and Chu Teh-jun were reflected partly

in the social intercourse with them. But it was difficult to distinguish the level of closeness. I were examined concretely the social intercourse with Lee Je-hyun and Chu Teh-jun through autographic poetry that I found lately.

These materials were contained the two poetries of Kwon Han-gong and the four poetries of Lee Je-hyun. It henceforth must be investigated the place of possession, the quality and the size of the materials but it would be the important material to consider the social intercourse with the literary men between Koryeo and Yuan. In spite of the poetry's intercourse with the literary men between Koryeo and Yuan, it has not been remaining in the existing collection of works. In particular, there were few the poetry of Goryeo. But the collection of Chu Teh-jun included his poetry to response of the poetries of Kwon Han-gong and Lee Je-hyun, which was judged useful to catch the academic intercourse more than the former materials.

And these materials as an autograph literature were the outstanding texts in the present circumstances that not remain the real trace in those days. In particular, the material of Kwon Han-gong is the important thing to examine his literature and writing ability. Therefore, these materials would be held an important position in the research of the field of poetry and calligraphy in the latter part of the Koryeo dynasty.

**Key Word**

Yuan, Koryo, Chungsunwang, Lee Jhe-hyun, Kwon Han-gong, Chao Meng-fu, Chu Teh-jun, calligraphy, Neo-Confucianism, Lo Chen-yu

▪ 논문투고일 : 2011.5.11 심사완료일 : 2011.8.2 게재결정일 : 2011.8.5